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nuausa@snuaa.org
website: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구경희
편집인 : 김정수

자랑스런 동문들

이광선, 조철원, 배중면 동문 의학 및 과학개발 연구상 수상



이광선 동문 (의대 65년 졸)

신생아 방역학 연구상.

많은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고 있다. 세분의 동문들이 미국의 의학 및 자연과학기술 분야에서 그간의 창의적인 연구업적으로 수상을 하게 됨을 재미 총동창회는 이를 축하합니다.

이광선(의대 65년 졸) 동문은 현재 The University of Chicago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인바, 지난 10월 10일 지난 20년 간의 신생아 방역학(Perinatal Epidemiology)의 연구업적으로, 2001년도 Jonas Salk Health Leadership Award in Re-



조철원 동문 (문리대 66년입)

우주항공용 신소재 합금 개발.

search를 수상하였다.

(이광선 동문의 수상식장 연설문은 제13면에 있음)

또, 조철원(문리대 66년 입) 동문과 배중면(공대 85년 입) 동문은, R&D (Reserch & Development) Magazine이 매년 전세계에서 중요한 연구 개발품 중 100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연구개발상인 R&D 100 Awards의 금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들은 지난 10월 4일 The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Chicago, IL 소재)에서 있는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

조철원 박사는 우주항공산업계의 필수적인 물질재료인 Aluminum 2098의 발명으로 수상하였다.

2098합금(合金)은 Aluminum에 Lithium을 첨가해서 만든 새로운 계열의 신재료로서 조박사가 1995년에 특허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미공군 F-16 전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Alu-



배중면 동문 (공대 85년 입)

전기 자동차용 새 연료전지 개발.

inum 2098 합금(合金)은 초(超)강도(強度)와 초(超)내구성(耐久性)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열(熱)에도 강해서 음속(音速)의 두 배 이상의 속도를 가진 항공기의 동체외곽에도 쓸 수 있는 재료이다. 그는 이 분야에 17개의 발명 특허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계의 전문가이다. 현재 McCook Metals Company의 연구 개발부장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수상 개발품 설명 8면 참조>

배중면 박사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Argonne Lab의 Technology Division 연구원으로 재직중인바, 이번에 Argonne Fuel Cell Research Group의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전기 자동차등에 쓰일 연료전지인 Fuel Processor를 위한 Autothermal Reforming Catalyst에 관한 연구로 2001년 100 Awards를 수상했다.

<수상 개발품 설명 8면 참조>

李會長 Heartland 지역 동창회 순방

- 6개주의 동문들이 결속한 모범적인 동창회

9월초 10일부터 25일까지 서울의母校와 총동창회를 방문하여 재미 동창회의 제반 사업과 관심사를 점검하고 돌아온 이용락(공대 48년 입학) 재미 총동창회장은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 간에 걸쳐 열린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에 참석하였다. 이회장은 동창회 임원들을 격려하고 3시간의 장거리 운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6개주(Nebraska, Iowa, Arkansas, Missouri, Wichita Kansas 및 Oklahoma)로부터 참석한 80여명의 동문들과 교환하며 재미 총동창회의 제반사를 토론하였다 (지역동창회 행사 진행과정은 제 21면 참조).

양일 간에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의 활동사항을 참관한 이회장은 지리적으로 산재한 많은 동문들을 우정에 찬 결속력을 다지며 장학사업 등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금년에도 동문들의 성금(誠金)을 모아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음), 또 총동창회보에 끊임 없이 지역소식을 다양하게 보내와 회보를 알차게 하는데 이바지한 하트랜드 동창회를 모범적인 지역 동창회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모범적인 동창회의 운영에는 김호원 회장과 전임 이교락 명예회장 및 신임 이상문 회장과 재직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 이회장은 관찰하였다. 특히 이번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이임하는 김호원 회장은 이번 "동문의 밤"의 행사 및 동창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여불의 사재(私財)를 쾌적하여 (행사진행 계획서에서 편집자의 발견) 따뜻하고 보람찬 동창회 총회가 되게 하였다.

또 총회를 마치면서 어려운 동창회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총동창회에 보낸 지역동창회 분담금 5백불과 재미 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동창회 명의로 5백불의 관약후원회비를 보내왔다.

또한 하트랜드 지역동창회는 테러 사건 이후의 조문(弔問)분위기의 시국(時局)을 감안하여 총동창회에서 보낸 축하 화환을 정중히 사양하는 모범도 보였다. 재미 총동창회는 이에 하트랜드지역 동문들의 건승(健勝)과 지역 동창회 발전에 축하를 보냅니다.



6개주에서 모인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동문의 밤에 온 동문들.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3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5면

최근 이, 취임하신 지역동창회 회장단

이임하는 회장님들, 그간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라 - 李惠娥 회장
(의대 61년 졸)



뉴잉글랜드 - 姜慶植 회장
(문리대 59년 졸)



뉴욕 - 崔徹容 회장
(상대 63년 졸)



하트랜드 - 金好元 회장
(치대 56년 졸)



워싱턴 DC - 文成吉 회장
(의대 70년 졸)

신임 회장님들, 지역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의 건승하심을 바랍니다.



필라 - 姜英培 회장
(수의대 63년 졸)



뉴잉글랜드 - 李在新 회장
(공대 62년 졸)



뉴욕 - 韓昌燮 회장
(문리대 62년 졸)



하트랜드 - 李相文 회장
(상대 61년 졸)



워싱턴 秦今燮 회장
(약대 63년 졸)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을 기하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부가 시카고로 이전한지 벌써 4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성원으로 재미 서울대동창회보 발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동창회보는 미주에 산재해있는 동문을 한 가족으로 결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이런 우리 동창회보를 더욱 발전시켜, 여러분이 항상 기다리는 신문이 되도록 제 6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회보발간 사업이 아직도 구독료만으로는 그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자진해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후원회 이사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재정문제로 동창회보 하나 동문들의 힘으로 발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동문들의 자부심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에 동문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후원이사로 참여하셔서 우리 회보발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악후원회 이사회비는 본 회보 제일 마지막 면에 있는 양식에 기입하신 후 보내주시면 후원회 이사로 추대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28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 송순영(宋舜英), 회장 이용락(李龍洛)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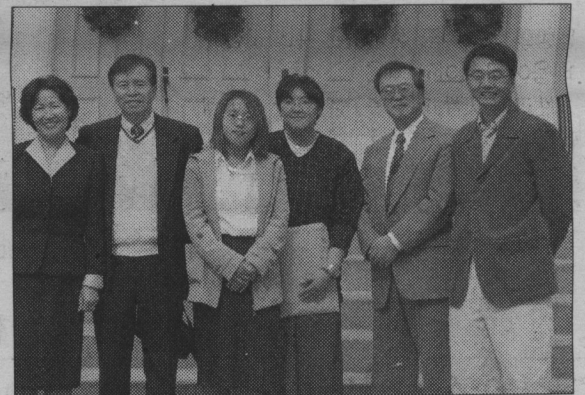
재미 총동창회의 제 6대 집행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출범하였고 그간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뉴욕과 워싱턴 D.C.,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에서 새 회장님들이 취임 하였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보는 그 발간지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옮겨오는 와중에 각 지역 동창회의 동정 보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 회장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뒤늦게 이를 보도함을 여러 동문들께서는 해량(惠諒)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인>

모교 대학신문 기자단

미국 4개 우수대학 취재후 귀국

- 재미 동문들에게 감사

재미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미국의 선진 4개 대학(MIT, 하버드, 버클리 및 스탠포드대학)의 교육체도를 탐방 취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취재한 모교 대학신문 기자단(서지현, 석혜옥, 심재용 학생기자)은 계획된 취재일정을 완수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귀국후 기자단은 이번 취재여행을 가능하게 한 재미 동문 선배들에게 감사하며 재미 총동창회와 모교동기 백만불 기금 위원회(위원장: 오인석, 위원: 방은호, 윤정옥, 이병준, 임낙균, 김병수, 이용락) 및 방문취재 중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신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다.



뉴잉글랜드 동문들과 대학신문 취재기자단, 사진 좌로부터 Mrs. 윤(김복섭), 윤상래, 석현혜, 서지현, 윤용훈, 변중훈 동문. 사진 촬영: 심재용 대학 신문기자

재미 동창회보 투고 요령

- ◇주제 및 내용: 동문들이 쓰고 싶은 어떤 주제나 장르 -시, 소설, 산문
- 전문분야 연구논문, 평론, 서평
- 시시문제 평론
-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게재기사나 글에 대한 독자의 평가 및 의견
- 각종 자료원이나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
- ◇원고 길이: 제한 없음
- ◇투고요령(편집 편의 우선 순위)
 - ▶e-mail with attachment(한글 또는 외국어)
 - e-mail 주소: snuausa@snuaa.org
 - ▶fax: 원고(육필원고 혹은 타자된 원고) 및 편집자료 제안물(사진, 글, 독자의견) fax) 847-981-1465
 - ▶우송: SNUAAUS
 - 790 Busse Rd., Suit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 편집자 직통전화: (847)981-1464
- ◇원고마감일: 제한 없음(월간지임으로 다음달에 게재될 원고의 마감 일은 매월 25일임).

九月의 만가(挽歌)

An Elegy of the September

이전구 <농대 64년 졸>

1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왔네
 어~~~~이 어~~~~이
 지구 끝의 정 반대쪽 크고 넓은 이 나라에
 어~~~~이 어~~~~이
 大鵬의 뜻 크고 품고 우리의 뿌리깊게 내려
 어~~~~이 어~~~~이
 이 나라의 백성 되고 온 세상의 일꾼 되어
 어~~~~이 어~~~~이
 이사회에 인정받고 이 나라에 인정받아
 어~~~~이 어~~~~이
 온 우주의 충신 되려 이 나라에 건너왔네
 어~~~~이 어~~~~이
 <후렴>
 그러나 어이할까? 어이하리 어이 하리
 어~~~~이 어~~~~이
 피끓는 육체 가진 영혼 아쉬워서 어이하리
 어~~~~이 어~~~~이

2

동방의 예의지국 현명하던 우리 조상
 배움이 제일이고 많은 지식이 힘이라고
 人性교육 天性교육 子子孫孫 잘 가르쳐
 명문대학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 사회의 양념되고 이세상의 소금되려
 지구 끝의 정반대쪽 큰 나라에 건너왔네
 <후렴>

총3

오늘아침 출근길에 아내 한번 안아주고
 아들딸에 뽀뽀하고 손 흔들고 일터에 나가
 마천루 높은 곳에 커피한잔 손에 들고
 온 세상을 내려보니 꿈도 많고 희망도 크네
 九月 하늘 맑기도 하고 대서양은 넓기도 하며
 摩天樓 높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책임도 크네
 <후렴>

4

天使도 인간의탈을 쓰고 魔鬼도 사람의탈을쓰니
 천사인지 마귀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네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구리를 친 연후에
 붉은 불길 토해 내고 검은 연기 풀어 내어
 수천 수만 영혼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는
 크나큰 마귀인줄 그 누가 알았던가?
 <후렴>

5

건강할 땐 病魔가 엿보고 편안할 땐 妖怪가 엿보고
 집가진 자 火魔가 엿보고 財物있는 자 도둑이 엿보네
 힘자랑하면 불량배 모이고 포악한자엔 원수가 생기네
 나라를 가지면 敵國이 생기고 태평성대엔 奸賊이 엿보네
 미움은 증오를 낳고 크나큰 증오는 마귀를 만든니
 미움의 뿌리 뽑아내고 천사의 씨앗 가꾸어 보세
 <후렴>

총6

*부추 앞에 맺힌 이슬 어이 급히도 마르는가?
 *마른 이슬은 내일아침 또 다시 앞에 맺힐텐데
 *우리인생 한번가면 그 언제나 다시오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北天山으로 갈까보다
 내가 묻힐 北天山이 언덕너머에 있다한들
 한줌의 재도 찾을 길 없으니 북망산이 무슨 소용!
 <후렴>

7

造物主님 만나 뵙고 내 영혼을 의탁하니
 잘난자 못난자 구별도 없고 부자도없고 빈자도없네
 백인도 흑인도 구별이 없고 동양인 서양인 차이도 없네
 小國人 大國人 크기도 없고 내나라 네나라 國境도 없네
 기독교인도 이슬람도 조물주 앞에 늘어서서
 착한 자는 天堂으로 악한 자는 地獄에 가네
 <후렴>

8

죽음의 신 어이하어 이리도 급히 재촉을 하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사랑하는 우리 형제
 疏遠했던 우리 이웃 조금만 더 함께 할 것을
 어찌 이렇게 재촉하오 못 다한 사랑 아쉽구려
 아속하오 아속하오 죽음의 神이 아속하오.
 <후렴>

<6장의 *표 3 소절은 中國의 악부시집(樂府詩集)의
 해로가(偕老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이 어~~~~이는 1장에서와 같이 모든 行間에
 들어가는 것이데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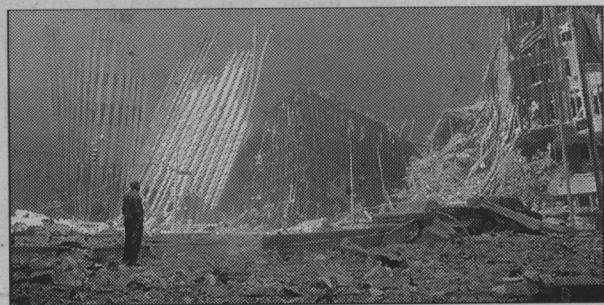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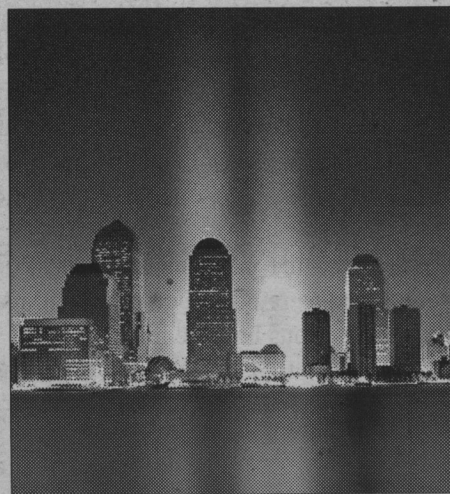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反 테러리즘 특집

- 1. 9월의 만가, 이전구 3면
- 2. 영원히 잊지 못할 9월 11일, 노재욱 4면
- 3. 9월 11일 비극과 반테러전쟁, 김종율 5면
- 4. 선한 사람들, 추재욱 6면
- 5. 9.11 테러사건에 대한 단상, 정택수 8면
- 6. 지금은 가슴으로 이야기 할때, 방준재 7면
- 7. Neo-Pax Americana, 장동만 9면
- 8. 9.11 이후의 세계경제, 허석균 10면
- 9. 당신은 성한 데가 없어요, 오태희 11면
- 10. 간염과 간암의 최신 지견, 이해원 12면
- 11. 의학상 수락연설, 이광선 13면
- 12. 알루미늄 합금 2098 발명, 조철원 8면
- 13. 자동차 연료 분사기 개발, 조중면 8면
- 14. 나노 기술과 탄소 나노 튜브, 김필립 14면

<편집자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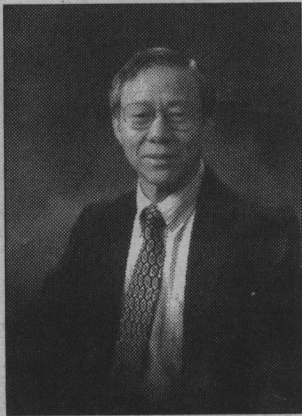
이번 호는 미증유의 9.11 테러리스트 만행의 비극에 대한 동문들의 글을 모아 반 테러리즘을 특집으로 삼았다. 예정된 생명공학 특집의 준비 '미비로 갑자기 계획된 특집을 가능하게 글을 보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또 3분의 초대할 필자들을 천거하신 뉴욕지역동창회의 한창섭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9월 11일

盧在煜 <의대 64년 졸>

<필자주> 지난 9월 11일, 뉴욕의 지구촌 경제의 상징인 The World Trade Center 와 미국 국방의 상징인 Pentagon이 테러단에 의해 강탈당한 비행기에 충돌 폭발되고, 다른 한 비행기는 탑승자들의 저항으로 Pittsburgh 외곽에서 추락 폭발된 사건을 목격한 후 울분과 통탄을 하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곳 미국(美國)에 살면서 시민(市民)이 되고 죽은 후 이곳에 뼈를 묻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한, 이곳은 우리들의 제 2의 고국(故國)임에는 틀림없다.

그 엄청난 사건 뒤에 숨어있는 세계정치, 경제적 배후가 여하하던 간에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애국심이 꿈틀거렸음을 많은 Korean-American들과 함께 느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에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며 다음 두편의 글을 씁니다.



테러사태이후 미국의 온 거리에 펼쳐이는 성조기.

The Unforgettable Day

September 11, 2001

On a fine day of late summer
Flowers a blooming,
Birds are singing,
Butterflies are frolicking with flowers,
All living creatures are vivid and vibrant
As people are getting busy with their daily work,

An unbelievable, unforgettable, and horrible event took place in New York City, New York State, USA

The city, greatest, most metropolitan, universal and favorite to many inside the nation and abroad alike,

That everybody loves to come and visit,
That everybody admires and sightsees with wonder and curiosity,

That everybody cares.

The Twin Towers, The World Trade Center in southern Manhattan, was hit by airplanes that were hijacked, taken over with force and piloted by heinous monstrous creatures.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witnessed that the grandiose skyscraper, the Twin Tower, The World Trade Center is collapsing with flame in front of their eyes.

Over six thousand souls in the World Trade Center and in the airplanes were perished in conflagration, rubbles of metallic beams, concrete pieces and broken glasses.

So many people screamed, cried, and sobbed at the sight of collapsing the Twin Tower in flame.

Who can forget the day, September 11, 2001!

Who can forget the day that the World

Trade Center has disappeared from New York's grandiose majestic skyscraper!

Who can forget the day that many souls have perished amongst explosion, fire rubble and chaos.

Wishing all the victims may be taken to the heaven close to Good Lord

Where no sufferings, pains, hostilities and angers exist,

Where only peace, comfort and harmony exist.

Wishing all those parents,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neighbors may be comforted and overcome sorrow and grief.

Wishing all those horrible perpetrators are brought to justice and punished.

On a fine day of September, an unimaginable event took place in this great nation USA,

When the sky became dark covered with smog,

When people all over the world were horrified and bursted with anger over the unforgivable crime,

The crime that is against humanity and civilization on the earth,

The crime that is most barbaric, heinous, and horrible,

The crime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would never forget, condemn and reproach.

In spite of such a great loss and gravest grief,

The nation will overcome, thrive, and prosper

'Cause this nation is made of great people
Who love and fight to keep liberty, freedom, justice, equality, and peace.

God bless America.

September, 2001 Jae O Ro

The Heroes Perished in the Crash of United Fl 93

An airplane, Boeing 754, Fl 93 has taken off flying toward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from Newark International.

All passengers on board are ready to have breakfast served by friendly smiling Stewardesses.

Everybody is happy visiting beloved harbor city San Francisco, California

Where families, relatives, friends, or business partners are waiting.

Some would have thought going over to Fishermen's Wharf to have fresh sea food and favorite wine or China Town to dine at favorite Chinese Restaurant.

Some others would have thought driving through Golden gate Bridge to visit wineries in Napa and Sonoma valleys.

Others might have thought going to visit Monterey Bay, Seventeen Mile Drive, Pebble Beach, etc.

Some may have had a plan to go Yosemite National Park or Lake Tahoe,...

To their astonishment and even frightening, people on board have learned that the airplane has been hijacked and the World Trade Center has already been hit by the hijacked airplanes. In addition, they also learned that their hijacked airplane was aiming Capital of the nation.

Even in the midst of fear and anxiety, people on board were not subdued and did not surrender to the heinous horrible hijackers.

Instead, they have risen and fought risking their lives.

Alas! The fate of the airplane with innocent souls have ended in crash to the ground exploding in remote field near Pittsburg. all those people on board perished with crashing airplane

Oh! How sorrowful, sad, and unnerving happening,

That no one has ever imagined.

They did not die in vain. They were victims of horrible crime, though they died in honor and dignity

That will be remembered in the heart of mil-

ions forever.

They depicted their patriotism, as honorable and precious as soldiers dying in the war to defend their homeland.

Their patriotism will live forever in their hearts of all Americans.

Let's pray for them, may their souls be closed to Good Lord

Where no more pains, hatred, hostility, angers exist,

Where only peace, comfort, and harmony exist.

Please Good Lord be with their beloved families, relatives and friends to comfort, condolence and ease their pain.

Above all, please bring peace to the world, abolish all anger, hostility, and hatred from the world

God bless USA, perished victims, and families.

September, 2001, Jae O Ro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원고투고처 :
e-mail 주소 : snuaausa@snuaa.org

9월 11일 悲劇과 反테러 戰爭

평화회복은 폭 넓은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김종율 <사범대 55년 졸, 교육학박사>

희생(犧牲)의 人間像

아침 출근 시간에(8시 43분과 9시 3분 EDT)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납치(拉致)된 여객기(旅客機)의 돌진(突進) 공격을 받고 불타는 장면은 계속된 방영으로 우리의 뇌리(腦裏)에 생생하게 박혀있다. 그러나 500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 미국의 비극은 직접 다하지 않은 우리에게 영화의 장면을 보듯, 애절(哀切)한 감정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 그 현장 근처를 가본 후에야 이번 참사의 아픔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붕괴된 건물의 잔해(殘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광장에는 주변의 건물들도 상상외로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 폐허화한 전쟁터를 상상케 하는 광경이었다. 바리케이트가 곳곳에 놓여 있는 Broadway 남쪽으로는 무장(武裝) 군인, 경찰, 연방요원(聯邦要員)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연(煤煙)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문 때문에 정부청사 입구에는 사람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이루고 있었다. 이전에 사람의 물결로 잘 거닐 수 없었던 Broadway는 황폐된 살벌한 거리로 변했다.

이 참사의 현장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나는 불타는 건물 속에서 삶과 죽음의 분기점(分岐點)을 오갔던 인간 드라마를 연상(聯想)할 수 있었다. 무역회관 1번지가 피격(被擊)된지 한 시간 56분만에, 그리고 2번지가 피격 40분만에 완전 붕괴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구(出口)를 잃고 위층 사무실에 갇혀있었다. 열기(熱氣)에 못 이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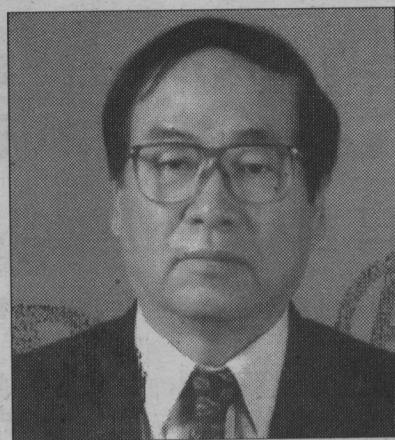
로 손을 잡고 뛰어 내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도 있었다.

화염(火焰)이 짙어 죽음을 의식한 그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마지막 고별(告別) 인사를 하였다. "I love you so much." 라고 작별하였다. 흔히 듣는 "I love you."란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를 여기에서 실감하게 된다.

제각기 살기 위해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소방관들은 100 파운드나 되는 무거운 장비(裝備)를 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소방대가 50층까지 올라 왔을 때 남쪽 빌딩이 무너지는 폭음을 듣고 그들은 되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층까지는 1시간 거리인데 빌딩은 30분만에 무너진 것이다. 350여명의 소방대원이 이런 모양으로 희생(犧牲)되었다.

76층에서 만원(滿員)이 된 승강기에서 탑승을 애걸하는 한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26살의 젊은이가 있었다. 다음 승강기를 기다리다가 그는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구(巨軀)의 친구와 같이 행동하다가 희생된 남편이 있다. 아내의 빨리 피하라는 간곡한 전화 애걸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를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없었다. Pennsylvania에서 추락한 비행기에는 두 살 짜리 딸을 가운데 앉히고 단란하게 여행을 떠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여행을 간다고 여럿이 가방을 메고 부모들 사이에 앉아있는 그 아이는 즐거움과 안전감에 싸여 있었을 것이다. 또 이 여행기와 함께 숨진 한 여승무원(女乘務員)의 3살 난 딸은 어머니가 돌아올 것을 아직



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선전포고(宣戰布告)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행위를 그들은 성스러운 전쟁(聖戰)이라고 부른다.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이 시작되자 bin Laden은 아랍의 위성 채널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CNN과 다른 방송사는 이의 재방영을 통해 그에게 가장 화려한 선전무대를 제공한 것이다. 그는 알라 神에 의하여 미국의 중요한 심장부가 파괴되었다고 하면서 神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世界를 알라 神에게 충성하는 者와 不忠(불충)하는 者들(fidel 과 infidel)로 구분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승리(勝利)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 국민에게는, 팔레스타인에 평화(平和)가 깃들고 아랍 성지(聖地)에서 미국이 물러갈 때까지,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경고는 위협만은 아닐 것 같다. 1998년 Kenya와 Tanzania의 미대사관 폭파사건 후 그의 조직인 Al Qaeda 일원(一員)이 검거되었을 때 그들은 더 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였다. 그 예고가 맞아 들어간 것이다.

Bush 대통령 역시 쌍둥이 빌딩과 국방성이 공격당했던 날 反 테러 전쟁을 세계 선포하였다. 그는 이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며

몇 년이고 테러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양측의 선전포고는 미국사회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하였다.

歷史의 분기점(分岐點)

9월 11일은 미국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제 미국은 9.11 前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 살게 된 것이다. 인권(人權)이 국가안보(國家安保)라는 보다 긴급한 과제 때문에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모든 생활이 불편하게 된다.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다. 여행을 할 때 옛날처럼 출발 전 몇 십분 남기고 나갈 수 없다. 검문에 의한 교통 정체(停滯)를 예측해야 하고, 공공건물 출입에 불편을 각오해야 한다. 고층건물이나 지하철, 교량 등은 불안의 요소가 되었다.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세균이나 화학무기에 의한 상수도의 오염을 걱정할 것이다. 세균에 의한 테러 행위는 벌써 현실로 나타났다. 탄저병(炭疽病, Anthrax)의 위험은 아직 실질적인 피해는 적지만 사회전체를 혼란 속에 빠트리고 있다. 세균감염 우려로 미 연방의회와 뉴욕주지사 사무실이 몇 일 동안 문을 닫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단서를 잡지 못한 이 사건은 어떻게 확산될 지 예측을 할 수 없다. 경제문제는 말할 것 없다. 주식의 폭락,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경제 침체는 이 사건 이전에 벌써 일어나고 있었다. 연방정부의 잉여예산의 수혜(受惠)라는 것은 이제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인들에 대한 무료 의약품제공 등의 공약(公約)은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공약을 사회보장 기금(社會保障 基金)을 손대지 않고 실시하려던 것이었다.

여행의 불안 때문에 항공업계의 타격은 격심하다. 뉴욕에서 3,000 mile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서부(西部)의 도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6면에 계속>

근조(謹弔)

재미(在美)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들은 2001년 9월 11일 출근시간에 발생한, 민간인(民間人)이 탑승한 3대의 여객기를 납치하여 민간인(民間人)이 밀집하여 일하고 있는 The World Trade Center로 몰아가 폭파하고 추락시켜 6,000여명의 무고한 인명(人命)을 살상(殺傷)한 그 만행(蠻行)을 반인본주의(反人本主義)와 반문명주의(反文明主義)로 규탄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생된 분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弔意)를 표하고, 그 유가족(遺家族)들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합니다. 지금 Afghanistan에서 진행중인 반(反) 테러전쟁이 민간인들에 대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내지 않도록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불안의 소용돌이에 몰아가고 있는 우편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탄저병(Anthrax)살포의 근원이 조속히 수사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하나의 마을로 좁아진 전 세계에 인본주의(人本主義)와 인권주의(人權主義)에 입각한 정의(正義)로운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10월 28일 在美 서울大學校 총동창회 회원 일동

선(善)한 사람들

월드 트레이드센터 참사 구조현장에서

秋載玉 <의대 63년 졸업, 현 맨하튼 카브리니 메디컬센터 의사>

아직도 병원 앞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한국사람들도 끼어있다. 죄 없이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은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부서진 소방차 사다리 위에는 성조기가 걸려 있고 살아남은 소방대원들의 눈시울은 벌겍게 아직도 슬픔에 젖어 있다. 2백 여명의 대원들이 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그 고귀한 희생 위대한 아메리칸들이다.

거리 구석구석에 자욱히 쌓인

잿더미,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배겨 낼 수 없는 이상한 냄새, 6.25 사변, 월남전전선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간적으로 당한 너무 엄청난 재앙이다.

건물재료를 스며 나오는 독한 연기 속에서는 10분 이내에 뇌 세포가 죽는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용광로와 같은 화염 속에 빌딩 내부가 폭사 주저앉았으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조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연기 속의 아비규환, 방향을 몰라 헤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두 블록 떨어진 고등학교에 다니던 조카의 말에 의하면, 다행히 비행기가 반대 방향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3천 여명의 학생들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부상당한 채 가까스로 살아 남아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이 복도에서 응급처치를 기다리고 있다. 폐 조직이 심하게 파괴되어 숨



쉬기 힘든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피를 흘리는 환자들, 아무도 나 먼저 살려달라고 고함지르는 사람은 없다.

갑작스런 충격 속에 혼비백산해 났을 땀을 흘렸을까? 아니면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인간성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많은 소방대원,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남을 돕고 있다. 많은

한인 의료인들도 이름 없이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다.

병원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는 자원봉사자들, 서로 먼저 헌혈하겠다고 줄지어 있는 선한 사람들, 혹시 살아있을 한 생명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소방관들.

악한 무리들도 있지만 이 나라에는 너무도 위대하고 좋은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 나도 이 정의로운 대열에 끼어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린다.

갑자기 참사를 당한 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하랴. 그러나 절망 속에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니 다같이 기도 드리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글은 원래 한국일보 2001년 9월 27일자에 실렸음)

<5면, 9.11 비극과 반테러 전쟁에서 계속>

그 곳에는 하루 5회 여행기가 드나들었으나 이제는 3회로 줄어들었다. 연 2,800만 불의 수입이 40%로 준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던 테러 행위의 여파(餘波)가 현실로 나타났다.

美國의 苦悶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번지고 있는 Moslem들의 극렬한 데모는 그 나라 정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무슬림 정부들이 미국의 반(반)테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반미(反美) 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침략에서 구출해 낸 쿠웨이트 역시 미온적(微溫的)이다.

그 반면 bin Laden은 이슬람 세계에서 한 영웅(英雄)이 되어 있다. 왕자처럼 생활할 수 있는 부와 사치를 버리고 회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성전(聖戰)을 펼치고 있는 투사라고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의 일류 여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은, 한 기자의 질문에 모두 bin Laden을 지지한다고 하며 그는 테러범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주 순진한 소녀들이었다. 9월 11일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이 불타는 것을 보고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무슬림 청소년들도 파리와 리온 그리고 화란(Holland) 등지에서 축제의 데모를 하였다.

심지어 로이터통신은 Terror라는 용어(用語)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쪽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편에서는 자유(自由)의 투사(鬪士)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에 중요한 공격기지(基地)를 제공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데모에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아프간 공격이 빨리 종식되기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 북부동맹군(Northern Alliance)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싫어한다.

현 Taliban 정권은 아프간 남부의 다수(多數)를 점하는 Pashtun 종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파키스탄의 다수 민족과 같은 인종이다.

따라서 북부동맹의 Uzbeck나 Tajiks 등 소수민족(少數民族)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전후 아프간의 안정된 정부수립을 고려할 때 북부 동맹군과의 관계가 단순하지는 않은 것이다.

bin Laden이 부르짖는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은 무슬림 국가들의 빈곤층과 학생들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이슬람 과격파들은 미국에 테러를 가하는 한편 아랍정부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아랍정부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양면정책을 쓰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 악한 정부를 반 테러 전쟁 대열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미국의 큰 과제이다.

美國內의 示威

이번 사건 이후 미국 국민들 거의 모두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반대시위도 점차 나오고 있다. 이것은 월남전쟁시의 반

전 데모와 달리 평화운동에 가깝다. 데모의 주류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아프간을 폭격하는 대신 bin Laden과 그의 추종자를 국제전쟁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러범을 지구상에서 발본(拔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것은 현실적이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한다.

전쟁이 길어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 평화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

지금 일반 미국시민들의 부시 대통령 지지율은 대단하다. 그들은 근대에 와서 자국(自國) 영토(領土)가 직접 공격을 당한 일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의 시민이나 대통령의 신병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의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보고 그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군사적 경제적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의 애국심(愛國心)은 국기(國旗)의 물결과 더불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 복구 작업에 자원봉사자가 뉴욕뿐만 아니라 멀리 서부에서도 왔다. 헌혈(獻血)운동이 시작되자 곳곳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모금(募金)운동에 연예인도, 노동자도, 어린이도 모두 참가하였다. 낯선 사람과도 서로 포옹하며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였다.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하며 절도, 강도 사건이 줄어들었다. 정부나 의회, 여야(與野) 할 것 없이

모두가 단합되어 있다. 대통령은 CIA를 문책하는 대신 찾아가 그 노고를 치하했다.

平和의 길

진주만 공격 때 보다 배 이상이 죽음을 당했고 국방(國防)의 심장부와 경제활동의 상징이 공격을 당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미국은 테러범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아프간을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터는 아프간이 아니라 미국 국내(國內)인 것이다. 미국의 적(敵)은 국가나 열굴이 없다. 그들은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며 미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테러로부터 방어(防禦)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12억의 무슬림족(族)이 아랍이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60여개 국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테러와의 전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 전쟁은 우리가 9.11 이전의 자유를 되찾았을 때야 끝나는 것이다.

bin Laden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이슬람과 비 이슬람의 대결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 종파는 서로 형제인 것이다. 기독교(基督敎)의 신교구교가 유대교를 포함시키기 위해 "Judeo-Christian"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뿌리를 나타내듯이, 이제는 이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Abrahamic" 란 용어마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과 가장 우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십 학년 교과서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과의 친교를 금하며 그들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 종교관을 매일 한시간 가르치고 있으니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종교는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유사점을 찾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 하겠다. 이것을 현실화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다. 무슬림 국가들이 반(反) 테러전쟁을 진정 지지한다면 다른 종교들도 올바르게 이해하는 교육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자기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미국 교육의 한가지 목표는 인종(人種)간의 편견을 없애고 다른 문화와 민족을 잘 이해하는 데 있다. 6백만 무슬림 교도가 미국에서 공존(共存)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미국의 이념(理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건이후 미국에 있는 무슬람에 대한 폭행이나 인종적 언급이 따랐지만 미국정부는 이를 적극 억제하였다. 그리고 교회나 이웃에서는 식품을 모아주고 상담을 하고 시장을 같이 가면서 도움을 준 것이다.

근본주의 이슬람 신도들은 순수성을 부르짖으며 타협을 거절하지만, 그것은 아집(我執)이며 진리(眞理)와 거리가 먼 것이다. 세계 평화(世界平和)는 상호 이해(理解)와 포용(包容)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가슴으로 이야기 할 때

방준재 <의대 63년 입학>



어두운 새벽 하늘을 먼 곳의 천둥처럼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사라지곤 하고 있다. 9월11일 참사 후 매일 들리는 소리다. 뉴욕 상공을 초계(哨戒)하는 전투기들인가 보다고 단정하고 있다.

바깥엔 비가 후후후둑 참문을 때리고, 참사가 일어났던 그 날부터 꼭 2주가 지났지만 뭐가 뭔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슨 일들이 전개되어 갈지, 캄캄한 바깥처럼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날, 9월 11일 화요일 아침을 되짚어 보고 있다.

뉴욕의 초가를 날쌔게 하늘은 청명하였고 초추(初秋)의 양광(陽光)이 이곳 대지를 밝게 비추던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출근길 차창으로 스며들던 바람까지도 상쾌하던 그런 날 누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행위로 붕괴되리라고 상

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 사건은 믿을 수 없지만 일어났고 눈앞에 처참한 현실로 전개되고 있었다.

만성 심부전증으로 병원을 들랑 날랑하던 레티시아 할머니의 병실을 회진 차 들렀을 때 화염에 쌓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환자용 조그마한 TV 화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중얼거리며 냇을 잃고 있었다. 환자 체온을 재러 들어왔던 간호보조원도 커다랗게 눈을 뜨고 입을 가린 채 말을 잇더니, 체온도 재지 않은 채 그 방에서 뛰쳐나가고 있었다. 아마도 터져 나오는 오열 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경악의 순간이 지나고 분노의 숨결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대통령은 21세기 최초의 전쟁으로 선언하고 성조기의 물결 속에 모든 미국 국가 기능은 전쟁준비에

쏟아 붓고 있다. 생죽음을 당한 수천 명의 영혼을 위해 집집마다 촛불이 켜지고, 동료의 죽음을 당한 소방서와 경찰서 앞에는 바리케이트와 영정을 담은 사진과 촛불이 곳곳에 보이며, “We Will Not Forget Them”라 쓰여진 벽보가 여기 저기 붙어 있다.

의사당 계단에서 있던 상 하원 의원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미국인으로 모두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선언하며 “God Bless America”를 다 함께 부른 후 서로가 서로를 달래듯 포옹하던 장면은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미국의 정신에 뭉클한 나머지 누가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손상된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국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있다. 성금이 모여지고,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기도가 이어지며 참사에 얽힌 영웅들의 이야기, 운명적 순간을 피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만 지금 미국은 모두가 정신적 공황상태, 집단 우울증에 휩쓸려 있다.

참사가 초래한 충격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눈앞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

9월 11일 이전과 그 이후의 미국은 전혀 다른 미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불확실한 내일을 다시 예측할 수 있는 미래로 바꾸려는 엄청난 국가 동원력에도 감탄하면서도 시류를 역행하는 것이 (Sail Against the Wind) 자기 나름의 이성적 영웅행위라고 생각하는 논객들의 정신 착란증도 보이고 있다.

모든 일의 준비와 대처에는 타이밍과 우선 순위가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분노로 뒤끓을 때이고, 지금은 참사에 대한 애도와 서로의 포옹이 필요한 때이며 국가는

그 분노의 분출을 합리적 방법으로 찾고 있는 즈음에 설익은 설(說)이나 주위들은 지식으로 마치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절대 선(善)인양, 문명의 총돌이니, 종교 전쟁의 시작이니, 미국의 외교정책을 탓하기도 하는 나약한 식자(識者)들은 그런 논리를 주장하기 전에 일의 우선 순위와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머리(理性)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값싼 감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분노하고, 애도하고 서로의 공허감을 감싸주는 가슴(感性)으로 이야기하며 울고 싶은 사람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도록 내내려 둘 수는 없는가? 인간의 탈을 쓴 석상(石像)인지 쉽게 알량한 지식을 늘어놓는 식자(識者)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세월이 지나면 순리대로 이성적 인간군으로 돌아 갈 때가 있으리라 믿으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나는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보고 싶다

술하게 사라져간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祝 發 展

在美 서울 大學校 總同窓會報

동문여러분! 우리 동창회보는 同門들의 손으로 만들어 同門들이 읽는 知性人의 友情을 나누는 場입니다.

재미 동창회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우리 동창회보가 자급자족의 목표를 이룩하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 구독료 납부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28일 회보구독료 납부자 일동

(납가주지역 29명) 이수복(약대70입), 홍주안(공대66입), 김흥기(사범대58입), 문덕수(공대73입), 이근설(상대56입), 정광진(농대76입), 김향자(약대61입), 최예섭(치대45입), 김재신(음대60입)박취서(약대60입), 강영민(문리대58입), 임택선(공대52입), 김광근(치대59입), 오길평(치대61입), 김진호(약대64입), 정유석(의대58입), 강항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59입), 신정자(사범대63입), 권길상(음대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57입), 장동석(문리대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56입), 김원경(약대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샌프란시스코지역 0명), (뉴욕지역7명) 최형혜(간호대64입), 박장생(의대54입), 이삼민(문리대58입), 홍정표(음대67입), 주성문(의대58입), 이찬서(자연대82입), 곽선섭(공대61입), (시카고지역 39명)최웅소(공대60입), 임현재(의대59입), 강영국(수의대67입), 소진문(치대58입), 유태임(교육대67입), 김용성(상대54입), 고병철(법대55입), 정승규(공대60입), 장윤일(공대60입), 강창민(의대58입), 구경희(의대59입), 계훈택(의대55입), 송재현(의대48입), 배건재(공대 53입), 이덕수(문리대62입), 이철주(치대77입), 전영자(미대58입), 남상용(공대52입), 고영철(의대45입), 이영웅(의대62입), 김택수(의대63입), 조형원(약대54입), 박창훈(공대66입), 정남재(사범대56입), 이범세(의대57입), 임재일(농대64입), 이정일(농대57입), 장기남(문리대62입), 김정일(의대57입), 서상현(\$100, 의대71입)조중행(의대63입), 조영재(상대68입), 김봉주(사대72입), 차광순(사대70입), 최동규(법대79입), 이용락(공대48입), 이승자(사범대60입), 임이섭(\$100, 미술대54입), 손기용(의대68입), (워싱턴DC지역 4명), 오광동(공대52입), 맹옥열(간호대68입), 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섭(상대68입), (워싱턴주 3명) 윤재명(의대 65입), 김봉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휴스턴지역 1명) 김태훈(공대57입), (달라스지역 1명) 김인호(공대47입), (미네소타지역5명)문일지(공대61입), 조형준(문리대62입), 변우진(인문대81입), 왕규현(의대56입), 주한수(농대62입), (조지아 지역 0명), (아리조나지역 0명), (유타지역 1명), 손홍용(공대58입)(하와이지역 0명), (오레곤지역 4명) 김상만(음대46입), 성성모(사범대67입), 최동근(문리대50입), 이태호(문리대61입), (기타지역 1명)이종진(공대55입), (필라델피아지역 1명) 전방남(상대73입) (뉴잉글랜드지역 2명) 노인규(의대52입), 김순규(문리53입) (하트랜드지역 2명) 구명순(간호대, 66입), 이상문(상대, 57입)(펜실바니아지역 0명) <지금까지 올해 납입자는 100명에 총액 \$5,150에 불과합니다. >

Aluminum 2098 합금(合金)

趙哲源 <문리대 66년 입, 현재 McCook Metals LLC 연구개발부장>

<편집자주> 조(趙)동문은 문리대 물리학과를 1971년에 졸업하고, 1980년에 Cornell 대학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친후 ALCOA (Aluminum Company of America)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우주 항공산업에 필요한 신재료 개발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였고, 1988년에는 Reynolds Metals Company에서 Al-Li 합금연구개발부를 이끌어 1992년에는 Al-Li 계열로서는 처음으로 Aluminium 2195합금을 개발하였고, 그 후에도 산업적으로 성공한 Al-Li 계열의 합금으로 2094, 2195 SPF, 2297, 2196, 2098을 개발하였다. 조 博士는 이번에 수상한 "R&D 100 Award" 외에도, 1999년에는 美宇宙 航空局으로부터 Space Shuttle Program 에 과학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Silver Snoopy Award"를 수상하였다. 그는 Reynolds Metal Company의 후신(後身)인 McCook Metals LLC회사의 연구개발부장으로 계속 우주 항공산업의 재료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Aluminum 분야에서 지난 21년동안에 17개의 특허권을 받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계의 전문가로서 국제화학회나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초빙연사로도 연설을 하였다. 올해에는 Belgium에서 열린 "Aluminum Chair 2001" 學會에서 歐洲共同體의 우주항공산업 전문가들을 위하여 "Al-Cu-Li 계열합금이 우주항공산업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설하였다.

Aluminum 합금 2098 개발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종래에 항공기 재료로 이용되던 알루미늄 합금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Aluminium 에 Zinc와 Magnesium을 첨가해서 만든 Aluminum 7xxx 합금 계열이 있는데(예를 들면 7075, 7050 등등) 주로 고강도(高強度)가 장점인 재료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를 줄이고 파괴(破壞)역학적(力學的) 저항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구성이 약하고 또 열에도 약한 결점이 있다.

다른 대표적으로 항공기에 쓰이는 Aluminum 재료로는 2xxx 계열 합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24, 2014 등등) 이들은 Aluminum에 Copper(구리)와 Magnesium을 첨가해서 만든 합금이다. 이 계열의 합금은 내구성이 좋고 또 열에도 강한 특성이 있으나 고강도를 가질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이상 종래의 두 가지 합금 종류 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계열의 Aluminum 합금은 Lithium을 첨가한 것이다. Lithium은 원자번호가 3 이라서 (예로서 수소가 1, 헬륨이 2) 고체인 물질로 가장 가벼운 원소라 그 질량이 물에 비해 반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luminum 질량은 물에 비해 2.7배, 쇠는 7.5배가 된다). 따라서 Aluminum에 Lithium을 첨가한 합금은 그 무게가 더욱 가벼워지게 되고 동시에 탄성도(彈性度)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높은 탄성도는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에서 사용하는 재료로서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것이다.

이와 같이 Aluminum-Lithium (이후로는 줄여서 Al-Li) 합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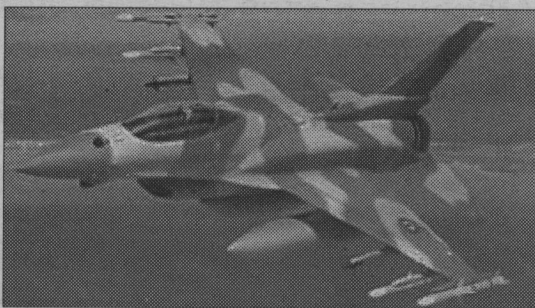
커다란 장점들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몇 가지 결점도 있다. 예를 들면 Lithium을 첨가한 결과로 파괴역학적 저항력이 아주

약해지고 부식성(corrosion)에 대한 저항력도 아주 나빠지는 큰 결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세계에서 제일 큰 Aluminum 회사인 ALCOA (Aluminum company of America)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인 Boeing Airplane Company가 합동연구개발팀을 만들어 10년 동안 연구개발비로 1억 5천만불을 들였으나 여러 가지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1980년대 말에는 재료 개발을 포기하고 말았다.

한편 1988년부터 Reynolds Metals Company에서는 새로운 연구방향에 입각하여 제 2세대의 Al-Li 합금 개발을 시도하였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과 Lockheed Martin 회사가 국제 우주정거장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제 2세대의 고성능 Space Shuttle 개발의 일환으로 Reynolds Metals Company에서는 새로운 Al-Li 합금을 연구하여 그 본래의 장점인 가벼운 무게와 높은 탄성도 외에도 초저온에서도(섭씨 -253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용접가공이 가능한 "2195" 합금을 개발하게 되었다. 2195 합금은 Al-Li 계열의 합금으로는 처음으로 큰 산업적 성공을 거둔 것이어서 우주항공 재료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의 Al-Li 계



열의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2297 합금은 아주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비행기 구조에 두꺼운 후판(厚板)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94 합금은 초고강도와 방탄(防彈) 능력이 높아 현재 개발중인 미국 해병대를 위한 차세대 수륙(水陸) 양용(兩用) 장갑차(裝甲車)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R&D 100 Award를 수상한 2098 합금은 높은 강도와 높은 내구성 외에도 강한 부식 저항성과 높은 파괴역학적 저항력도 지니고 있으면서 열에도 강해서 음속 두 배 이상의 속도를 가진 항공기의 외과 동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2098 합금은 명실공히 7xxx 계열 합금의 장점과 2xxx 계열 합금을 장점을 동시에 갖춘 신재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2000년도부터는 F-16 공군 전투기에 제작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Al-Li 합금 계열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결점을 가격 문제이다. 처음에 Space Shuttle에서 2195 합금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항공기용 Aluminum 합금의 10배 가격이었으나, 수년간에 걸친 연구개발로 인하여 지금은 3배 내지 4배 정도까지 가격이 인하되었지만 아직도 그 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조철원박사 연락처 : 708-387-8544

Fuel Processor를 위한 Autothermal Reforming Catalyst에 관한 연구

배 중 면 <공대 85년 입학, Ph.D, 현재 Argonne National Lab 연구원>

이번 수상품목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연료 전지(燃料電池)를 장착한 전기(電氣)자동차는 종래의 내연기관(內燃機關)을 이용한 자동차에 비해 높은 연료효율과 매우 적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공기로부터 공급)를 전기 화학적으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매우 높은 효율을 지니며 물만을 배출한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연료전지의 상용화(商用化)를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化石燃料)를 수소로 변환시켜 주는

Fuel Processor의 성공적 개발이 필수적이다.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Fuel Research Group에서는 Fuel Processor의 핵심적 요소인, 혁신적인 촉매(觸媒)개발을 통하여 저비용(低費用)과 작은 크기(종래의 25분의 1 크기)의 Fuel Processor를 개발함으로써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한층 앞당겼다. Argonne Fuel Processor는 이러한 작은 크기와 빠른 start-up time, 낮은 작동온도를 구현한다. (연락처 : 630-252-4450)



HIGHLANDER ANNUAL LADIES TOURNAMENT HOLE IN ONE #13, SEPTEMBER 20, 2001, HALLSBROOK COUNTRY CLUB

박정자여사 Golf 홀인원

지난 9월 19일 캔사스시 남쪽에 있는 홀부릭 컨트리 클럽에서 하트랜드 전회장 김호원동문(치대 52입)의 부인 박정자여사께서 "홀인원"을 기록하여 스티커 가격 \$33,000 상당의 포드 스포츠카인 무스탕 컨버티블을 價으로 타게 되었다.

이 날의 홀인원은 캔사스시인 여자 골퍼들의 시합인 "하이랜드"대회(130명 참가)중 제 13번 홀 136야드에서 요넥스 7번 우드로 친 볼이 그린 오른쪽에 낙하한 후 바로 그린 왼쪽에 있는 홀을 향해 굴러

들어 갔다는데, 전 날에도 동 홀에서 근접상을 탄 홀이기에 인연이 아주 깊은 홀 같으며, 김정자씨는 이모든 영광이 주성모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며 감격을 금하지 못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한편 홀인원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0월 2일 플라자 마추식당에서 서울대 동창가족을 포함한 16명의 부부들이 모여 홀인원 트로피를 박여사에게 수여하며 홀인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날 골프대회 임상자

2001년 9월29일

그랜드 챔피언(재미 동창회장 배) 지일성동문(의대 61입) 그로스 챔피언(하트랜드 회장 배) 배규영동문(사대 68입) 남자 1등 조영신동문(상대 86입), 2등 이교락동문(의대 53입), 3등 최정일동문(경영대학원 90입)

□ 여자 1등 오명순동문(가정대 69입), 2등 Mrs. 김호원동문(치대 72입), 3등 Mrs. 김계윤동문(의대 57입) 장타상 남자 : 이준기동문(공대 80입), 여자 : Mrs. 김백년동문(의대 52입) 근접상 남자 : 윤수현동문(상대 85입), 여자 : Mrs. 배규태동문(상대 61입)

9.11 테러사건에 대한 단상(斷想)

미국의 중동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鄭澤洙 <문리대 50졸>

우리는 모두 9.11테러사건의 만행에 분노하고 그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증유의 참사(慘死)가 어떻게 하여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지만 여러각도에서 냉정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차 대전 후 전세계에 산재하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建國)되었을 때에, 그곳이 중동(中東)의 끝없는 화약고(火藥庫)가 되리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중동분쟁의 역사를 살펴볼때, 미국(美國)의 "친 이스라엘 정책과 미국의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이고 독선(獨善)적인 외교정책은 드디어 9월 11일의 대 폭파사건을 야기 시키고 말았으며 이번의 참사는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이 자초한 필

연적인 산물이었다"라는 세간(世間)의 의견을 무분별(無分別)한 억척으로만 돌릴 수가 있을까?

미국은 일찍이 자유(自由)를 찾아서 이곳에 온 청교도(淸敎徒)들의 이주를 시작으로 오늘날 전세계의 무수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多民族)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건국(建國)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약소국가 위에 군림(君臨)하여 왔고 지금도 그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국제정치에 있어서 흔히 보는 현실주의(Realism)의 산물로서 우리는 당연시 할 수만 있을 것인가? 이곳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큰 울타리 안에서 잘 살고 있음을 볼 때에 때로는 미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김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직도 항상 나의 가슴에 맺힌 한(恨)—— 남북분단(南

北分斷)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부정(否定)적인 역할과 이에 따라 파생된 많은 비극과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역할도 돌아볼 때에, 나는 끊임없는 상념과 고뇌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원인을 고찰할 때에 미국의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또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공산권(共産圈)의 붕괴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미국의 패권주의(霸權主義)에 대하여 나는 강한 회의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을 때만 영구(永久)적인 세계평화를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미국이 주장하는 평화에는, "미국이 패권주의(霸權主義)를 가지고 전세계를 자국(自國)의



영도(領導) 하에 두고자 한다"는 세론(世論)에는 일말의 진리(眞理)는 없는 것인가?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5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계, 재계, 언론계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느 소수 인종집단에 의하여 좌지우지(左之右之)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마를 같이 좁아진 지구촌(地球村) 시대에 있어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평화와 모든 민족의 화합(和合)을 위한 정책을 사심(私心) 없이 펴나가야 할 도

덕적(道德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테러 사건을 주도하였거나 그 일에 가담하였던 자들은, 그 만행(蠻行)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하겠다.

다만 이번 보복(報復)전쟁의 여파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하고 국가와 인종간에 분열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 종교전쟁(宗敎戰爭)의 양상(樣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 산재(散在)한 테러 분자들을 완전 소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인즉, 미국은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고집하지 말고 이번 보복전쟁을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끝냄으로서 전쟁 당사국의 인명피해와 세계경제의 불황을 최소화(最小化)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포감에 허덕이는 미국시민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원컨대 오늘날의 미국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구(懇求)하는 가운데 세계 평화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원(祈願)한다.

Neo-Pax Americana

張東萬 <문리대 61졸>

미국은 역사상 유래없는 대참사(大慘事)를 당한 후 이를 전쟁행위(戰爭行爲)로 간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 결의를 굳히고, 지금 "Enduring Freedom" 작전(作戰)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있다.

그 여처구니없는 테러를 당한 미국민들의 경악, 슬픔, 분노, 그 다음에 오는 한껏 고양된 보복 심리의 발현은 보다 더 큰 비극의 초래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세기(世紀)의 비극(悲劇)이 어떻게 결말지어 지도록 기원해야 할 것인가? 이번이 이 같은 미국의 비극의 근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슬한 논의가 있다. "문명(文明)의 충돌론"이 새삼 거론되고, "인종갈등론(人種葛藤論)"이 주장되고, "종교상극론(宗敎相剋論)"이 내세워지고, 또, "영토분쟁론(領土分爭論)"이 제기되고, 또 "특정민족"의 편향주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번 테러를 야기시킨 그 근본 원인을 생각

함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가 이익의 무한 추구정책에서 찾고 싶다. 잘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힘센 나라가 더 힘 세지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 가진 힘을 마구 휘두르는 데서 오는 못 사는 나라, 힘약한 나라들의 반발(反撥)이자 도전(挑戰)이라고 본다. 제 3세계와 세계의 양심(良心)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비난 매도되는 미국의 패권주의(霸權主義), 미제국주의(美帝國主義), Pax Americana의 황포, 초강대국의 오만과 독선 등등의 말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런데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이 같은 비난과 매도를 받아가면서 무한(無限) 추구하는 국가이익(國家利益)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미국국민들을 위해서이다. 미국민에게 보다 싼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 분쟁에 개입하고, 미국 국민의 문화(文化), 가치(價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구 구석구석까지 보편화시

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세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한 시민으로서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볼 대목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국가와 그 수혜자인 "미국민"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가 공존하는 복합국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개념의 하나의 국가, 하나의 나라라기 보다, 인류역사의 시험장으로서 세계의 축소판(縮小版)으로서 하나의 "작은 세계"이다. 그 작은 세계 안에는 백인, 흑인, 동양인, 아랍인, 우대인등 전 지구 온갖 인종이 모여 살고 있고, 또 그들 모두가 적건 달건 그 미국 이익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다시말해 그 미국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어느 한민족 한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온 지구상에서 이 땅에 온 세계사람들이다. 거기에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도 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은 세계의 국익추구는 이제 그 지평선을 확대, 미국 땅 50개주 안에 살고 있는 세계 사람들만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익추구가 되어야 한다. 미국경선안에 사는 세계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미국경선 밖에 사는 세계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너무나 이상론(理想論)일까? 국가 및 국경선의 개념이 무너지고,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미국의 국가이익의 개념 또한 이같이 국경선의 범위를 벗어나, 범지구적, 범인류적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나는 이를 Neo-Pax Americana라고 부르고 싶다. 나는 세계역사가 이러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자유(自由), 평등(平等)과 평화(平和)다. 이

이념(理念)은 결코 미국땅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가치는 아니다. 그리고 링컨이 말한 "For the People"이란 말 또한 미국땅 안에서 사는 미국민만을 뜻하지 않고, 그 People의 개념을 전 지구상에 사는 온인류를 일컫는 말이라고 확대할 수는 없을까?

나는 이제 "God Bless America"는 "God Bless World"로 바뀌어 불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세계 인구의 약 4.5%가 세계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America, 미국 다음가는 9개국의 전체 방위예산(防衛豫算)을 합친 액수와 맞먹는 돈을 방위비에 쏟아 붓는 America! 그 America는 이미 신(神)의 축복을 충분히 받았다.

이제는 그 신(神)의 축복을 작은 세계 안에서만이 아닌, 넓은 세계 모든 사람들과 다함께 나누어 받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미국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참된 정의(正義)다.

지금, 이나라는 테러리스트들을 "정의(正義)앞에 세우기 위해" 일전(一戰)을 감행하고 있다. 나는 잘 사는 나라 안의 세계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 미국의 국가이익의 혜택을 어떤 형태로건 받아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한 소시민(小市民)으로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꿈을 그려보았다.

9.11 이후의 世界經濟

허석균 <사회대 92년졸, 현재 Univ of Chicago 경제학과 강사>

9.11 사태의 심리적(心理的) 파장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하기 시작해온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자연재해, 특히 날씨로부터의 위협이었다. 과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고, 그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후가 가장 큰 위협의 요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 체제하에서는 농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농업에 대한 기후의 영향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이 수 천년 전 혹은 수 세기전의 사람들이 느꼈던 혹은 갖고 있었던 위협과 비교하여 작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는 개인의 자급자족에 바탕을 둔 고립형 구조였다. 따라서 개인의 위협은 자연과 개인 간의 문제였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개인 대 자연보다는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간의 관계가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신념체계와 신뢰관계의 불균형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9월 11일 뉴욕사태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소수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벌어진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 무역 센터의 붕괴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心理的) 충격을 주었다. 물론 그로 인한 물질적(物質的) 손실 또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인들이 가졌던 심리적 충격에 더 주목하여야 한다. 물질적 손실로만 이 사태의 영향을 재려한다면 이는 수년 전에 있었던 플로리다 지방의 허리케인 앤드류로부터의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의 경제는 이번 뉴욕사태로부터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일까? 그것은 9.11사태가 자연(自然)재해가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심리적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관계와 기대심리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 경제적 균형은 신뢰관계의 균형과 궤도를 같이한다. 금융시장에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들을 사람들이 신뢰와 기대에 의거하여 미래의 위협을 거래하는 수단들이다. 911과 같은 사태는 사람들을 사태의 물리적 영향력과 상관없이 비관적으로 만들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더 나아가 선물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교란시킨다.

9.11사태와 미국의 경제정책수단

먼저 911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논하기 전에 미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대체로 경제가 불황에 처해 있을 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주로 이자율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투자와 소비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새 집을 구입하거나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유도된 투자와 소비의 증가분이 슬럼프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이 따른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로 재정정책(財政政策)을 들 수 있겠다. 정부가 재정규모를 확대하거나 세수(稅收)의 감소(減少)를 통하여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가(增加)시켜 소비(消費)와 투자(投資)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또한 적자재정이나 물가상승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겠다. 현재 미국정부는 9.11사태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차의 이자율 인하를 단행하였고, 또한 막대한 양의 피해 복구를 위한 구조자금과 세수 감면조치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실시할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반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소비자나 투자자의 반응이다. 만약에 소비자나 투자자가 정부가 위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해당정책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좋은 예가 유동성함정(流動性陷穽, liquidity trap)이라 할 수 있다. 유동성 함정은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의 미국의 대공황기에 관찰되었으며 지금의 일본경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유동성 함정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에 경기 불황이 극심하고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자율이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언제가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투자수단이 현금통화와 채권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면 사람들은 그 증가된 통화량을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곧 있으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채권구입을 하려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에 정부가 의도했던 바는 통화량의 증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채권을 더 구매를 할 것이고, 채권의 증가는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업투자자와 국민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투자자나 소비자의 심리상태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의 상황을 기대하고 그리고 반대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통화정책은 아무



런 효과를 갖지 못한다. 이것이 Keynes가 미국의 대 공황을 설명한 유동성 함정인 것이다. 우리가 이 유동성함정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경제 상황이 케인즈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Greenspan의 이자율 조정을 통한 경제 조정정책은 더 이상 시장(市場)에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며, 그결과로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경제(經濟)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재정정책과 그 파급효과

그렇다면, 미국정부가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을 고려중인 확장적인 재정정책들의 영향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의 확장적인 정책이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사람들을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만든다면 미국경제의 불행은 예상보다 짧아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는 재정적자(財政赤字) 혹은 줄어드는 재정흑자(財政黑字)에 대해 우려하고, 언젠가는 정부가 그러한 재정손실을 메꾸기 위해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확장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소된 현재의 세금만큼 저축하여 미래의 늘어날 조세부담을 처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Bush의 감세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으며 이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하위 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보다 저축성향이 높기 때문에, 의도한 바대로 감세 정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지도 의문시된다. 위에서 고찰한 미국 경제 정책들은 세계금융시장의 동조화 메커니즘에 의해 다른 국가경제들에 파급효과를 갖는다. 국제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이란, 세계각국에 있는 금융시장의 흐름이 시간적 지체가 없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틀테면 유럽시장이 장을 닫고 난 후, 수 시간 이내에 미국 마켓이 열리고, 미국 마켓의 흐름은 어느 정도 유럽시장에서 수 시간 전에 벌어졌던 추이와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이 닫고 난 후 개장되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금융시장은 다시 전일 미국시장 장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는 어찌 보면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되고 있는 경향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관측해 보면 때로는 명백한 경제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동조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이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볼 때 동조화현상이 너무나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 IMF이후 심화된 것이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신뢰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된다 하겠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

다시 9.11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 보자. 9.11이전의 미국경제는 명백히 침체에 진입하고 있었다.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은 엄청난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Dotcom기업(企業)을 대표로 하는 신경제(新經濟)가 실질적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거품경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은 수 차례의 이자율 인하를 단행했으나 그 결과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 9.11이후 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반응하였으나 그후 한 달 이내에 9.11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9.11 이전은 국제적 요인 즉, 미국 외부(外部)로부터 오는 영향이 미국 국내요인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나(물론 일본의 10여 년에 걸친 장기침체와 유럽경제의 침체가 9.11이전의 미국 정부를 괴롭혔다), 지금은 해외(海外)요인, 특히 회교권과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 산유국(產油國)들이 거의 모두 회교권이며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자칫 회교권에 대한 탄압과 박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국이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다른 이슬람 국가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면, 세계경제는 원유공급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원유의 수요 감소로 인해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反射利益)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으로 탈레반 정권을 회교권 국가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실패하고 그들의 집단행동을 야기한다면 제 3의 오일쇼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럴 경우 유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이 야기되고 이는 실업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에 성장 저해요소가 발생하여 수요의 감소가 나타날 때 실업의 증가와 물가의 하락이 관찰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deflation이라 한다. 하지만 오일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물가의 상승과 실업의 증가를 동시에 가져다준다. 이러한 상황은 디플레이션과 엄격히 구별되며 stagflation이라고 불린다. 위에서 보듯이 지금의 국제현실은 여태까지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존재하고 더 이상은 관측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유동성함정과 stagflation라는 용어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11면에 계속>

연락처 : 773-957-9379

e mail : shur@uchicago.edu

생활수필

당신은 성한데가 없어요

吳泰熙 <의대 64졸, 현 Yale Univ 의대교수>

얼마전 일이다. 정기검진을 마친 안과 의사가 망막에 이상이 있다면서 급한 것은 아니지만 망막 전문 의사를 찾아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시력이 나빠져 안경처방이나 다시 써 줄 줄 알았는데 망막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렇게 잘 보이던 물체가 갑자기 희미하게 가물거리기 시작하였다.

금방 장님이 되는 기분이라 소개받은 전문 의사가 누구인지 잘 몰라 마음에 걸렸지만 우선 찾아가기로 했다. 사무직원이 전문 의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만날 날짜를 정하는데 소개 이유를 문자 Macular degeneration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였다.

안과에는 문외한이지만 망막의 한 가운데 망점이 변질되었다는 진단을 알아듣고 속이 편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앞에 좀 오래 앉아 있으면 머리가 멍하고 골프를 치면 날아가는 골프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당뇨병도 고혈압도 없는데 갑자기 망막이 변질되다니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열흘 후에 전문 의사를 찾아가니 시력검사와 망막검사를 다시 하여 소개해준 안과 의사의 소견을 확인 하더니 온 김에 정밀검사를 하여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Fluorescein이란 인체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색소인 색소를 혈관에 주입하여 컴퓨터로 망막을 들여다보는 정밀검사였다.

색소가 손등의 혈관을 따라 전신에 퍼지니 망막혈관으로 들어온 색소가 눈을 감아도 찬란한 무지개가 되어 눈을 부셨다. Technician이 시키는 대로 Gullotin처럼 생긴 검사대에 사형수처럼 턱을 내밀고 꼼짝 못하고 앉아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으니 카메라 샷터 소리가 반시간 동안 연발한다.

컴퓨터가 내 벨은 사진을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전문 의사가 망막에 손상은 없고 불규칙적인 혈관이

몇 군데 보이는데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되며 시력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동안 장님이 되는 꿈을 꾸느라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억울하였으나 장님은 되지 않는다니 한시를 놓았다.

그런지 얼마 안되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오니 이번에는 한 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귀에 물이 들어갔으려니 생각하고 아무리 귀를 쫓셔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귀머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귀머거리가 되었어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악성 베토벤이 머리를 스킨고 지나갔다. 어느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아들이 보청기를 사서 끼라고 하였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 이유인즉 그 나이에 들을 것은 다 들었는데 보청기까지 끼고 무엇을 더 들어야 하는냐고 화를 내더라는 농담도 떠들었다.

아픈 데가 유난히 많은 남편을 가진 나의 아내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전문 의사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은데 귓속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진단을 내리고 귀이개로 귓구멍을 호비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어 실망하였다 그러자 외과대학 후배인 김인귀 이비인후

과 전문 의사 집으로 아내가 전화를 걸었다.

김인귀 의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의사로 커네티컷 주에서 개업을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지나는 사이인데 마침 수요일이 휴일이라 집에 있었다. 설명을 듣더니 다음날은 환자수술이 있어서 나를 볼 수가 없으니 금요일에 아무 때고 사무실로 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하였다.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이 필요하지 그때 가서 알아보라고 설명을 하며 행여 일이 나뉘면 귀가 아프면 항생제를 복용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전문 의사 예약을 하고 나니 얼마 전에 의료기구회사에서 보내준 보청기 설명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되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는지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가 안 들려 약물치료가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다니 한심한 노릇이었다.

장님이 되는 악몽에서 깨어난 지 몇 주일이 채 안 되는 데 이번에는 귀머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뉴욕 가는 하이웨이에 말없이 서 있는 어느 농아학교 안내판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농아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어쩌나 겁이 덜컥 났다.

사흘 후에 사무실에서 만난 김인귀 전문 의사가 귀가 아직도 안 들리느냐고 물었다. 시간이 지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리기 시작했다고 대답하니 귀 검사를 시작하였다. 귓속에 귀지도 없고 염종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력 검사를 시작했다.

Technician이 하라는 대로 방음장치가 된 침침한 검사실에 들어가 Earphone을 끼고 의자에 앉았다. 유리통을 내다보니 무표정한 얼굴의 테크니션이 검사실에 장치된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설명을 하면서 과장이 각각 다른 음파를 이어폰으로 보내 감지하는 능력을 귀마다 따로 테스트하였다. 검사결과를 본 전문 의는 고음감별에는 지장이 없고 저음감별능력은 양쪽 모두 92%로 떨어졌는데 나 이로 봐서 그 정도는 보통이니 걱정 말고 골프나 잘 치라고 하였다. 보청기 얘기가 나오자 보청기를 끼고 싶으면 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이 수근거리는 얘기를 다 들어봐야 이로울 것이 별로 없어 정말 필요할 때에 주문하기로 하였다. 함께 갔던 아내가 귀가 갑자기 안 들린 이유를 들으니 하품을 하던가 소리를 질러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면 가끔 고막의 근육이 경직되어 고막이 작동할 수 없도록 얼마동안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저러나 눈 검사와 귀 검사가 A학점으로 끝이 나서 평생 C학점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불평의 여지가 없다. 아내가 비싼다. "당신은 그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머지않아 그런 말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고 생각하니 서운하기가 그지없다. 그럴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안경과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만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동창회보 원고 보내실 곳
e-mail 주소:
snuaausa@snuuaa.org

<10면 9.11이후의 세계경제서 계속>

미국 경제의 상태와 진로에 한국 경제의 회복이 달려있는 것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진로는 이번 미국 전쟁의 진로와 결말에 따라 춤을 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경제는 油價라는 태생적 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소수파지만 정반대의 전망을 지지하는 전문가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등 소위 반테러 진영이 아프간 테러반진영을 초기 전복시키는 등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지구촌 맹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이 할 경우 오히려 세계경제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침몰이라는 급한 불은 꺼지만 침체의 우울한 뉴스는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론 쪽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져 세계경제 역사 저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이 기록적인 고성장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이 주변 아시아 국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老夫婦의 사랑

신장 기증자 찾습니다!

서울대 학교 미 중 서 부 지역 동 문화 창립회원이 시며 제 1



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이 날 까지 동문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기억(문리대 47년 졸) 동문의 부인 천옥순여사께서 신장(콩팥) 기증자를 찾습니다. 병환이 깊어서 하루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랍니다. 혈액형은 O형 RH+ 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전화 414-351-2298 이기억

스티브姜 장학생(獎學生) 선발

스티브姜 장학생재단 (The Steve S.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젊은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스티브姜은 199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의 필립스쿨 대학원생이었다.

이 재단은 스티브姜을 추모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금하여 평소에 예술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스티브姜을 추모하고 우수한 예술인이나 순수과학, 인문과학, 응용과학분야의 뛰어난 학

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족되었다.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

올해는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그 지급금액은 총 3만 불이며, 수여 할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불의 장학금 (한명), 5천불 (2명), 2천불 (2명), 천불 (6명)

<장학생 선정기준>

학업성적, 예능 또는 창작력, 재정 사항 그리고 예술이나 과학에 대한 탐구력의 평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신청마감일 및 제출서류>

신청마감일은 10월 30일이며,

지방지는 이력서, 성적표, 재정보고서, 추천서 2통, 2페이지 지정도의 수필을 원본과 그 사본 5통을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website sskangfund.org에서 download하여 작성하고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 보낼 곳>

Mrs. C. Kimberly Kang
16 Forest Gate Circle
Oak Brook, IL 60523
Tel : 630-572-9202
Fax : 630-572-9765
E-mail : sskangfund@home.com

간염(肝炎)과 간암(肝癌)의 최신 知見

이혜원 <미국명 한혜원 · 의대 1961년 졸>

간에 염증(혹은 파괴)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간염 바이러스(5가지가 있다). 아메바균, 알콜, 여러 가지 약물, 지방축적증이다.

아메바균은 위생시설이 미비한 데서 보는 드문 병이고, 알콜, 독성의 약물 그리고 지방 축적 등은 본인의 위생관념과 지식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간염 바이러스는 자의 아니게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1.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viruses)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현재까지는 5가지가 있다. A, B, C, D, E형 바이러스인데 그 중 B형과 C형 바이러스는 간암까지 일으킨다.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D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D virus (HDV)]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

(F, G는 잠시 나왔다가 아직 확실치는 정해지지 않았음)

이들 바이러스는 인체에 들어가는 즉시로 간으로 가서 간세포의 염증 및 파괴를 일으키는 공통점 이외에는 서로가 다른 바이러스이며 감염 경로와 후유증도 다르다. (도표 1)

HAV와 HEV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앓고 있으면 그의 대변으로 다량의 바이러스가 나와 변기, 손, 타월, 손에 닿았던 음식, 식기, 음류 등에 묻어 그것을 먹는 사람이면 다 걸리게 된다. 다행히도 걸린 사람들 중 4명에 한 사람 정도가 황달을 동반한 급성 간염을 앓고 3명은 별로 앓지 않고 그 바이러스를 없애고 면역을 얻게 된다. 심지어 급성 간염 앓는 사람도 2-5주 앓고 난 후 면역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 보통이다.

HAV는 한국에 많지만, HEV는 주로 인도, 멕시코, 소련, 버마 등지에서 발생하며 한국이나 미국에는 드물다. 중요한 점은 이들은 만성 간염,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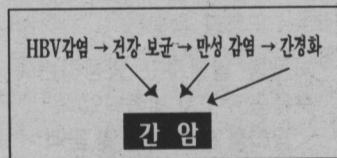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후유증 <도표 1>

	감염경로	후유증	
		만성간염	간암
HAV	오염된 음식, 음료	No	No
HBV	주로 피로	Yes	Yes
HCV	주로 피로	Yes	Yes
HDV	주로 피로	Yes	Yes(?)
HEV	오염된 음식, 음료	No	No

HBV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간암의 80-85%를 책임지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이며 가장 한국인을 괴롭히는 장본인이다. 전염 경로는 주로 피로, 혹은 체액(피에 비하면 훨씬 적음)으로 전염되고 한국에 있는 450만의 보균자의 3/4이 주로 출생 시에 감염되었거나, 유, 아동기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출생시 감염(수직 감염이라고도 한다)은 주로 보균모의 피에서 신생아로 HBV가 감염되는 것이고 그 후에 보는 감염 경로는 수평 감염으로 biting(어린이들), 칫솔 나눠쓰기, 면도칼 나눠 쓰기, 문신, 소독 안된 주사바늘 나눠 쓰기, 성교등이다. HBV 감염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만성 보균자가 되는 빈도가 높다. 대만에서의 통계에 의하면 HBV에 감염되는 시기가 신생아 때이면 90%, 유아기에는 50%, 소아기(6세이하) 때는 20%, 성인 때는 5%가 만성 보균자가 된다고 한다. HBV의 만성 보균자의 25-40%가 결국은 간염을 거쳐 간경화나 간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도표 2참조)

도표 2 간암 발생 과정

간암 발생 과정 <도표 2>



HCV는 1989년에 발견되어 1992년 이후에야 혈액 은행에서 HCV 검사를 한 후 수혈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 수혈 받은 사람들 중 많이 증상 없이 HCV에 감염되어 만성 간염 앓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HCV는 HBV와 전염 경로는 주로 피를 통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HBV가 출생시 감염이 많은 데 비해 HCV는 주로 과거에 수혈했다던가, 소독 안된 주사침 나

뉘 쓰는 일, 오염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는 일 등으로 감염되는 일이 더 많다.

HCV 보균모에서 신생아로 감염되는 정도도 5%이하 (HBV는 90%)로, 자세한 통계는 아직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 중이나 그렇게 큰 문제의 감염 경로 같지는 않다. 그 외에 언제 HCV에 노출된 기억을 살릴 수 없는 HCV 환자가 많은데 이들은 Community acquired case라고 하고 있다.

HCV에 걸린 사람들도 HBV에 감염된 사람들과 같은 과정을 밟아 보균상태 → 만성 간염 → 간경화 → 간암으로 진행하는데 만성 간염 환자에서 20%가 간경화로 되고 5-10%가 간암으로 진전한다는 통계가 있다. 다만 일단 HCV가 몸에 들어온 후 계속 감염되어 있는 소위 보균율은 100%이고, 만성 간염은 70%-80%에서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HDV는 HBV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소위 HBV가 있어야만 사는 HBV의 기생충 같은 바이러스라 하겠다. 주로 이태리, 그리스 등의 지중해 지방에서 많이 보는데 HBV 있는데 HDB까지 겹쳐 환자의 간염 상태가 몹시 심각할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드물게 본다.

HEV는 HAV처럼 오염된 음식물, 음료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이 매우 높다(자세한 전염 경로는 HAV에서 참조). 다행히도 이 바이러스는 멕시코, 소련,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보고되었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드물다.

2. 환자들의 이야기

LA에 살던 56세 남자는 10년 전 B형 간염진단을 받았으나 별로 증상이 없이 지냈다. 4주전부터 피곤하고 체중이 줄어서 의사를 찾았더니 여러 가지 검사 끝에 간에 직경 10cm의 큰 덩어리가 나타나 조직검사로 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GAP(후에 서술)치료를 받는 중이다.

59세 남자는 24년전 폐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았다.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좋은 직장을 다니



고 있던 중 자주 피곤이 와서 진찰 받았더니 이미 C형 간염으로 오래 앓아 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진전되어 있었다. 일년 후 간에 암이 3개 나타나 수술을 받았으나 곧 재발을 하였다. 결국 수혈받은 그 피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간염 → 간경화 → 간암으로 20여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이었다.

3. 한국 교포들의 B 간염바이러스 보균율

현재까지 미국 이민 온 한국 교

한인교포의 HBV 보균율 <도표 3>

나이(연령)	HBsAg (+)%	
	남	여
<20세	5.1	4.6
21-40	9.9	5.8
>41세	7.4	5.2
전부	7.5	5.2

포들 2만명 이상을 검사한 결과로는 도표 3과 같다.

4. 한국인에게서 간이 나쁘다 할 때는:

주로 HBV, HCV로 인한 간염을 우선 걱정해야 하고 다음에는 약물로(성분 모르는 보약도) 인한 간염, 알콜성 간염 및 지방간 등을 생각하게 된다. 유성으로 오는 드문 간질환도 있다.

5. 간염의 치료

1) B형 간염

미국에서 98년 12월에 마침내 나온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라미부딘이 만성 B형 간염의 최신 치료제(상표명 Epivir-HBV)로 많이 쓰이고 있다. 전에 쓰이던 주사약 인터 피어론(Interferon)은 B형에서는 별로 안 쓰게 되었다. 라미부딘은 한국에서도 99년 6월부터 제필스(Zeffix)라는 이름으로 허락이 나와서 많은 환자에게 쓰이고 있다.

하루에 한 알씩 먹고 부작용은 아주 적으며 HBV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리작용으로 환자의 피에서 HBV-DNA(증식하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율이 높고, 간염

도 점차 진압되어 환자들이 무척 좋아한다. 그러나 오래 쓰는 동안 워낙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력이 강하고 양이 많은 환자 중 이 약에 대해 저항력이(약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끊어야 할 시기에 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간 전문의에게서 약 투여를 시작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미부딘에 저항력이 생긴 때에 쓸 수 있는 약들도(예: Adefovir, Entecavir 등)현재 임상실험 중이고 그 외에도 HBV의 항 바이러스제는 10여개가 더 개발되어서 임상실험의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몇 개의 약들이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항이 안 생기도록 미리 몇 개의 약을 병합해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미부딘은 또한 심한 간경화까지 진행된 환자에게서도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여주어서 간장 이식을 기다리는 도중 경과가 양호해져서 이식이 필요치 않게 된 예들도 많다.

2) C형 간염

아직까지는 Interferon 주사를 3 million IU을 피하주사로 매주 월, 수, 금 맞고 적어도 6개월 투여하는 방법이 표준으로 되어 있다. 치료 효과는 50%의 환자에서 있는데 나았다는 환자들의 50%가 1년 안에 또 재발을 하므로 6개월 이상 1년 반을 치료하기도 한다. 요즘은

Interferon과 새로 개발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Ribavirin(라이바 바이린)을 겸용해 치료하고 있다. Ribavirin 하나만으로는 Interferon 만큼의 효과도 보지 못했으나 두 약을 겸용하면 48주 치료후에 51% 반응이 있어서 C형 간염 환자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Interferon 자체의 부작용에다가 Ribavirin도 용혈 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치료중 Hemoglobin이 3gm쯤 떨어지는 예가 많아서 의사의 면밀한 관찰이 중요하다. 요즘은 Long-acting Interferon (Pegylated interferon)이 실험 중인데, 부작용은 같으나 1주일에 주사를 3번 대신 1번만 맞는다는 장점이 있다.

C형 간염 치료에는 앞으로 좀더 좋은 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Interferon에 듣지 않는 환자 중 가끔 Amantadine(flu에 쓰이는 약)을 주었더니 50%에서 반응이 있다고 해서 이 약도 쓰고 있다. 경구용으로 100mg씩 하루에 두 번 투여한다. Interferon과 같은 부작용이 없고, 간경화로 인해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낮은 환자에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4면에 계속>

Jonas Salk Health Leadership Award in Research

<受賞 수락 연설>

李光善 <의대 65년졸, 현 The University of Chicago 의대 교수>

(편집자주) 다음의李동문의 연설문은 지난 10월 10일 수상한 Jonas Salk Health Leadership Award Acceptance Speech 이다. 이동문은 현재 University of Chicago의 The Pritzker School of Medicine의 Neonatology의 과장으로 재직중인바, 지난 20년간의 Perinatal epidemiology의 연구업적으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 The March of Dimes Jonas Salk 상은 Polio Vaccine을 개발한 Dr. Jonas Salk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1938년 이래 health care management, medicine, nursing, public community health, and research 분야에 있어 선구적인 업적을 낸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교수는 금년에 4번째

로 주는 health research leadership 상을 받았다. 이 수상자를 결정한 시상위원회는 Dr. Kwang-sun Lee의 수상공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Dr. Lee has been systematically defining important factors-medical, social, and public policy-impacting pregnancy to produce such adverse outcomes as low birth weight, preterm birth and severe birth defects. He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ur understanding of how race, maternal age and access to health care determine pregnancy outcomes.

연락처 : 773-947-8434
Kwang-Sun Lee, MD

The Text Of Prof. Kwang-Sun Lee's Award Acceptance Speech

Dr. Kaplan, I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for me. There are many of us in the middle of America involve in perinatal epidemiology. They are Jimmy Collins, Dick David, Steve Wall, John Paton, Nigel Paneth and so on. On behalf of them, I receive this esteemed award. I thank March of Dimes and its award committee for this event.

On September 11, more than 5,000 innocent people were murdered by terrorists. This criminal act stirred the whole world. But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globally every year about half million women are dying from childbirth. Only 0.2% of these deaths occur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Likewise, every year more than 9 million infants die before age one. Ninety-nine percent of these deaths occu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Poverty, ignorance, and life with little hope provide a breeding ground for terrorists. Afghanistan has about 25.8 million people. It has infant mortality rate of 150 per 1,000 live birth, by age 5, one out of every four children is dead. That is about a quarter of million children dying every year. Risk of dying from childbirth throughout one's reproductive period is one out of every 7 Afghan women, compared to 1 out of 3,500 women in this country. Only 15% of Afghan Women aged 15 or older can read and write. Afghan woman's life expectancy at birth is about 45 year.

Certainly, the criminals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But there is also a tremendous need to reduce poverty, to educate women, and to give them hope for their future. In this country, much lesser degree, we have pockets of communities having poverty and high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We, each of us, should support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ir efforts in improving quality of human life. For that, I salute March of Dimes for their efforts over the many decades.

Again, I thank you all for this award.
Thank you.

Oct. 10, 2001
Chicago Athletic Association.

<12면에서 계속>

6. 철분 제거 치료법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 중 많은 환자가 간에 철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철분의 축적은 환자에게 2가지로 해를 줄 수 있다. 첫째로 철분은 신진대사에서 계속 생길 수 있는 독성물질, 소위 free radical (유리기)를 생성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 이 free radical은 간 조직을 손상시켜 간의 파괴를 조장할 뿐 아니라 발암 요인(co-carcinogen)도 될 수가 있다. 둘째로는 철분은 세포 형성 과정 중 DNA 형성이 안되고 세포의 증식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철분이 간에 많이 있으면 간 속에서 빨리 증식해야 할 암세포가 생길 때 그 증식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간질환 환자 중 철분이 높을 때는 Therapeutic Phlebotomy(치료성 방혈, bloodletting)를 하여 철분을 낮춰주면 간염 수치도 정상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간염의 발생도를 낮추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7. 간경화 치료

간경화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 1-2단계에 있을 때는 증상치료로 거의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 B형 간염으로 온 간경화 환자이면 상기한 Lamivudine을 투여해 줄 수 있다. 간경화 말기로 들어가면 심한 복수, 간성 혼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빈번하여 그 간으로는 살기가 힘들게 되는데 그 때에는

간장 이식을 해야한다.

B형 간염 환자에서는 간장 이식 후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재발로 얼마 전까지도 성공률이 낮았다. 그러나 지난 2-3년간에 많은 치료 개선을 보여주어 특히 이식 전후에 Lamivudine을 투여하여 핏속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성공적이 되었고 이식 수술의 숫자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8. 간암의 조기 진단

간암은 상기한 대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환자 중에서 40세 이상의 연로자, 이미 간경화 된 사람, 만성 간염 환자, 남자, 동양계인, 술 많이 마신 사람, 몸에 철분이 높은 사람 등의 조건들을 많이 겸비한 사람일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다. (도표 4 참조)

B형 혹은 C형 보유자중 간암발생의 위험 요소들

- 간경화된 환자
- 만성 간염 환자
- 남자
- 40세 이상의 연로자
- 동양인- 술 많이 마신 사람
- 철분 높은 사람

<도표 4>

이들을 risk factor(위험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나 환자는 이상의 위험요소를 고려해서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진 환자일수록 자주 간암 검사를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위의 요소를 한 두 가지 환자들은 6개월마다 정기 간 기능 검사 외에 간암 혈액 검사(Alphafetoprotein과 ferritin)를 하고 1년마다 복부 간 촬영(초음파 아니면 MRI)을 하여 작은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cm하의 암도 찾아낸다.

9. 간암의 치료

1) 고주파 가열 치료법

최근 나온 치료법으로 간암 속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다시 그 안에서 더 가는 바늘이 4개가 나와 그 끝이 고열로 가열되어 암세포를 태워버리는 셈이 되는데 무통이고, 후유증도 적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다. 4cm 이하의 암에만 해당된다. 2-3개 있어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

2) TACE(혈관 조영술)

암이 작고(직경 4cm 이하), 1-3개쯤 있으면 동맥을 통해서 암 조직으로 직접 항암제를 투입해주는 소위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방법도 쓴다.

3) 알코올 투여술(PCED)

TACE대신으로 혹은 TACE하고 난 후에 암 자체 내로 100% 알코올을 주사침으로 직접 투여해주는 방법도 있다. 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PCEI)이라 한다.

4) 요즈음 TACE와 PCEI를 같이 하는 경향이 더 증가하고 있다.

5) 냉동제거 수술(Cryoablation)

위와 같은 조건에서도 외과 의사에 따라서는 절제수술 이외에 냉동 제거수술을 해 주기도 한다.

6) 외과 절제 수술

암이 한 개(4cm 이하)일 때는 환자의 간질환의 상태에 따라 간 기능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 국소 절제수술을 하곤 했으나 간의 다른 부분에서의 재발이 높으므로 요즈음은 수술은 덜 하고 있는 셈이다. 4cm 이하이면서도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예를 들어 간경화의 말기인 경우) 아예 간장 이식술을 해준다.

7) 간장 이식수술(Liver transplantation)

간에 4cm 이하의 간암이 하나만 있는 경우(그리고 간경화가 심해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TACE나 PCEI 줄 수 없을 경우) 간장 이식을 해주도록 한다. 문제는 기다리는 기간이 거의 2년(요즈음 모든 병원에서)이므로 그 기간 TACE, PCEI 등을 해보가면서 새 간을 기다리게 된다. 또 하나 문제는 간암 발생이 그 간의 BV, HCV의 간염 때문이므로 새 간으로 바꾸어도 핏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의 재감염이 HCV에서는 100%, HBV는 Interferon, HBIG 투여와 새로 나온 Lamivudine 등으로 재발율이 훨씬 낮아졌으나 역시 재감염이 있어서 새 간이 또 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간이 모자라는 현 상태에서 많은 간암 환자들을 이식수술로 해

결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고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항암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8) 항암치료(GAP)

위에 서술한 간암 치료 방법들은 생명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는데 불행히도 조기 진단에서만 가능하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복통이 있거나, 오른쪽 어깨가 아프거나, 황달이 오고, 체중이 주는 등)의 사한테 찾아와 암이 너무 크거나 간 막을 침범했거나, 이미 간 조직 밖으로 전이한 경우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3가지 약을 병합해서 이런 큰 암도 정상세포 보호제, Amifostine를 투여한 후 2가지 항암제(Gemtabine과 Cisplatin)를 병합해서 투여하여 2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봤는데 성과가 비교적 좋아서 이 방법을 더 추진중이다.

필자는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만 왔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B형 혹은 C형 간염 환자들이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면서 가슴아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간암, 간경화나 간염을 아예 처음부터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다. B형 간염 백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판되고 있다. C형 간염 백신은 아직은 없지만 연구 개발 중이므로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필라춘추 2001에서 전재를 허락한 필라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

SNUA OPINION LEADER

「나노 기술」과 「탄소 나노튜브」

지난 1999년 분자 크기의 물체를 집어서 움직일 수 있는 초정밀 나노 핀셋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金必立교수. 그에게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 정부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 기술(B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과 더불어 나노기술(NT)을 21세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우선 2005년까지 10조원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비단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은 새 세기에 들어 정부주도로 막대한 투자를 나노의 세계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나노기술 혹은 나노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노는 10억분의 1을 의미

나노(nano)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미터와 같이 사용되면, 1nm=10⁻⁹m, 즉 10억분의 1미터의 크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원자의 크기가 약 10⁻¹⁰m임을 생각하면 이는 원자 10개를 한 줄로 이어 놓은 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나노과학 혹은 나노기술이라 할 때, 이는 나노미터 크기 정도의 물질을 합성, 조작,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한세기 동안 인류는 마이크로(1μm=10⁻⁶m)의 세계까지 정복해 왔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전자기기의 경우를 보자. 20세기 초에 등장한 수 센티미터 크기의 진공관은 전기 신호를 능동적으로 처리, 증폭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한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같은 각종 전자기기의 혁명을 가져왔다.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한 전자소자의 발전은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거쳐 개개의 소자의 크기가 마이크로인 오늘날의 대규모 집적회로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날 최첨단 펜티엄 칩 속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그 크기가 수분의 일 마이크로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자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전자소자의 소형화는 보다 다양한 성능의 빠른 전자소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경험법칙의 하나인 무어의 법칙(Moor's)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실리콘 소자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데 인류가 필요한 시간은 평균 1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우리가 쓰는 전자소자의 크기는 단지 몇 개의 원자크기로, 즉 나노미터의 세계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물론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염연한 사실이다.

양자역학적인 효과 매우 커

일반적인 나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리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매우 커진다. 지난 세기 물리학의 최대 성과 중에

하나인 양자역학은 물질의 아주 작은 영역으로 내려갈수록 그 효과가 커짐이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 크기 물질의 경우, 이러한 양자적인 성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열적 피침 효과를 피하기 위해 극저온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나노물질의 경우 작은 크기에 의한 양자 속박에 의해 상온에서도 여러 가지 양자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나노물질을 이용하면 상온에서도 양자효과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전자소자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열요동 현상의 극대화에 의하여 거시계의 열역학 법칙과 다른 상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상태는 나노물질이 거시물질과는 다른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갖게 한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면, 일례로, 촉매활성이 극대화된 나노 촉매 등이 가능하다.

셋째, 매우 큰 표면적 대 체적비는 앞서 기술한 화학적인 성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노물질 내부의 결함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나노물질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결함 없는 완벽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기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기계적인 특성은 나노물질의 단지 전기, 화학적 응용 뿐 아니라 MEMS(micro-electricmechanical systems), 나아가서는 NEMS(panoelectric mechanical systems) 응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나노물질 합성의 2가지 방법

이와 같이 큰 응용성 때문에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나노기술을 연구하고 나노물질을 합성 및 제작하고 있다. 나노세계의 물질을 제작 혹은 합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소위 「top-down」 방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의 반도체소자의 마이크로 제작기술을 확장한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거시물질(bulk material)에서 출발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하고, 그 외에 다른 물질을 입히고 다시 그중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경우 이미 전자빔 식각, X-ray 식각 등을 통해 시험적으로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전자소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확장을 통한 나노미터 크기의 전자소자를 만드는 공정에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나노미터 크기의 대규모 식각방법, 나노미터에서의 고른 불순물 첨가, 그리고 나노미터의 절연체 개발 등 많은 넘어야 할 기술적인 난관들이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bottom-up」 방식이다. 이 방법은 우선 물리적 혹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선 나노미터 크기의 기본단위 물질을 만든 후, 이를 이용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IBM에서는 아이클러 박사 연구팀이

이미 십여 년 전 주사형 관통형 현미경(STM)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에서 흡착된 원자를 하나씩 조작하여 양자 간섭효과가 극대화된 나노 구조물을 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번에 많은 나노 소자를 만드는 데는 속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 조립 방법(self assembly)이다. 이 방법은 개개의 원자 혹은 분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나노블럭」들이 스스로 국소적으로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찾아 질서 있게 정렬하여 복합구조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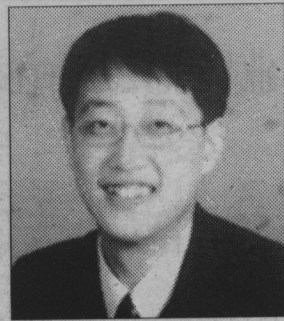
그것이 「top-down」 방식이건 「bottom-up」 방식이건 간에, 새로운 나노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은 나노 구조물을 구성하는 소재의 개발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나노소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각종 금속 및 반도체 나노 결정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나노 결정은 그 크기가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까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며, 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크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나노 결정들은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양자점(quantum dot)으로서 그 전기적, 광학적 응용의 가능성 등이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 보여진 바 있다.

또한 나노 결정을 이용한 활성 촉매 및 윤활제 등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0차원)에 가까운 나노 결정에 대비되어 일차원 물질에 해당하는 또 다른 종류의 나노물질로는 분자사슬이라 불리는 나노 와이어(nano wire)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탄소 나노튜브나 실리콘 혹은 갈륨-비소 나노 와이어 등이 이 종류에 속한다. 이러한 나노 와이어들은 가는 선재로서 크기가 단면으로는 나노미터 정도이지만, 길이 방향으로는 수십, 때로는 수백 마이크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나노 와이어들은 단지 나노미터의 재료로서만이 아니라 나노미터의 세계와 기존의 마이크로의 세계를 잇는 중간적인 재료로도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반도체 성질 지닌 나노튜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나노 물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탄소 나노튜브는 1991년 일본 NEC에 있는 이이지마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보다 몇 해 전에 미국 라이스 대학의 스몰리에 의하여 발견된 풀러린(fullerene)이란 물질과 같이 오직 탄소 원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신물질이다.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볼 수 있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있다. 나노의 세계에서는 이 같은 두 가지 탄소 물질의 형태 이외에도 새로운 분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풀러린과 나노 와이어에 해당하는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 것이다.

탄소 나노튜브가 많은 나노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 독특한



金 必 立

- 1990년 모교 자연대 물리학과 졸업
- 1992년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 1999년 美 하버드대 졸업(박사학위)
- 1999~2001년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분교 물리학과, 밀러 펠로우
- 美 콜롬비아대 물리학과 조교수

전기적인 성질에 있다. 도체의 성질에 가까운 흑연에 비해, 탄소 나노튜브는 그 원자배열 구조의 섬세한 변화에 따라 도체도 될 수 있고 또한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매우 독특한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성질은 일차원 전자 에너지 띠구조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몇 해 동안 이를 이용한 나노미터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가능함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여러 연구팀에 의해 경쟁적으로 보여진 바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자소자가 실재하는 실리콘 소자를 대체하는 양산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술적인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나노튜브를 이용한 나노미터 크기의 소자가 실험실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전기신호·열 수송능력 탁월

그밖에도 탄소 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꽤나 많다. 우선 튼튼 내 탄소 원자간의 강한 공유결합에 의하여 그 기계적인 인장 강도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 강도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면서도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롱처럼 부러지는 대신 휘어질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최근 필자의 연구진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탄소 나노튜브는 열 수송에서도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탄소 나노튜브로 단지 나노미터 크기에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까지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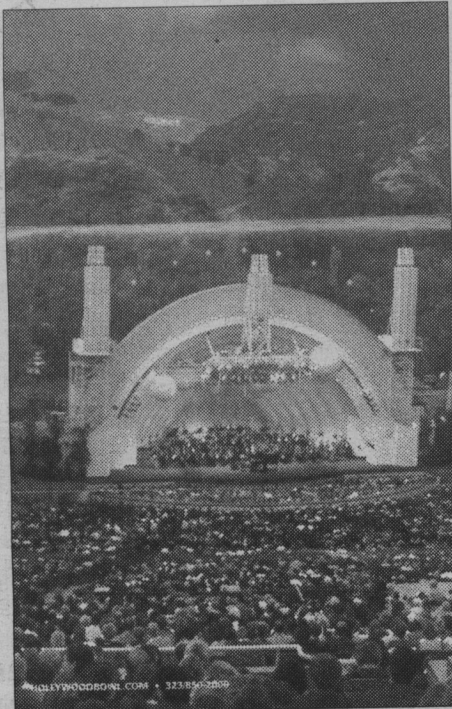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나노과학 기술은 이제 막 그 첫 걸음을 떼어놓을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하게도 한국의 나노 과학기술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고 있다. 한가지 예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FED(field emission display)소자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그 누구도 지금 나노 과학기술의 성과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친숙히 등장할 때가 10년 뒤가 될지 혹은 그보다 더 늦거나 빠를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는 더욱 더 늦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남가주지역 소식

남가주 서울대 동창가족의 밤 모임

-유명한 Hollywood Bowl 야외 음악회장에서 가져

지난 9월 1일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회장 李清光)에서는 가정대학 동창회(목련회)가 주최한 "서울대 동창가족의 밤" 행사를 Hollywood Bowl에서 개최했다. 이 Hollywood Bowl은 Los Angeles가 자랑하는 한 여름밤의 야외 음악회로서, 해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의 Firework Spectacular를 시점으로 9월말까지 석 달 동안 월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계속되며 그 연주되는 음악의 종류도 Classic에서 Jazz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근간엔 한국음악인들이 이 무대의 단골 손님이 되고 있는데, 정병훈, 정경화, 조수미, 사라張 등이 거처갔고, 올해는 NY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혜경이 LA Philharmony와 협연하는 무대가 지난 7월 31일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세 시간 전부터 가정대 동창들이 정성껏 마련한 푸짐한 음식들을 아름다운 꽃과 낭만적인 촛불로 장식된 야외 Picnic Table에서 Wine을 곁들여 나눠 먹으면서 회포를 풀었고, 이 날의 음악은 Tchaikovsky의 "The Nutcracker" Act II, Symphony #5, 그리고 The 1812 Overture가 현란한 불꽃과 함께 John Mauceri가 지휘하는 Hollywood Bowl Orchestra에 의해 연주되었다.

이날 참석한 모든 동창들은 동창회 모임 하면 Golf나 Party였

던 데서 벗어나 이런 문화행사를 더하게 되어 한껏 즐거워했고,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준 가정대 동창회 측에 아낌없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이하 임원들도 이날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전체 LA 거주 서울대 가족에게 널리 알리어 명실공히 가장 많은 동창이 참여할 수 있는 남가주 동창회의 정기행사로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 매년 이 지면을 통해 행사일정을 홍보할 때 많은 동창들의 호응 있기를 기대했다. 남가주 총동창회에서는 방석훈 前회장, 임낙균 수석부회장 및 김지영 총무가 참석하였다.

<기사제공: 제영혜동문(가정대 71년 입), 야 기사를 보내주신 방석훈 동문께 편집자는 감사드립니다.>



야외음악당에서 김지영, 정동주, 제영혜, 윤순재, 방석훈, 임낙균 LA 지역 동창회 동문들.

유타지역 소식

김성완 동문 서울 생명공학 심포지움 참가



한국의 과학교육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동문들. 사진 왼쪽부터 김성완, 조장희, 김성호 동문과 사회자 한인권 교수. (사진제공 중앙일보)

Utah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완 동문(문리대 졸)은 10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를 위한 생체의학 및 생체기술의 도전"이란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치료 유전자 전달을 위한 새로운 폴리미"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이 심포지움은 사단법인 한국노벨과학상 지원 본부가 주최하였는데, 노벨상에 근접하는 재미 석학들 - 김성호 UC Berkley 교수, 조장희 UC Irvine 교수, 데니스 최 워싱턴대 석 조교 및 김성완 Utah 대학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 네 사람의 참가자는 미국학술원(National Academy)의 정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앞의 김성호(문리대 화학과 졸) 조장희(공대 전자공학과 졸) 교수도 서울대 동문이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또 조장희 교수의 "침술요법의 생물학적 증거 탐구", 김성호 교수의 "구조 유전체학"과 데니스 최 교수의 "신경손상치료법 개발"이라는 주제의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또 이들은 모두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되고 있는 이들은, 현재 한국과학계의 열망인 노벨상 수상자의 탄생에 필요한 한국과학계의 발전방안등에 대하여 좌담회를 갖고 토론하였다. 이들은 한국과학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과학계의 지도자

부재(不在), 둘째 유능한 과학자의 국내유치노력 부족, 셋째 정부의 과다한 간섭과 넷째 경쟁없는 연구 등으로 지적하고, 이런 점들이 개선될 때 한국과학계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한국과학교육의 문제점으로, 김성완 교수와 김성호교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나 변함없이 원론적인 학문을 반복해 교육하는 제도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하고, 생명체와 같이 진화 발전하는 학문의 추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의 수시 재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현재 논쟁이 치열한 생명윤리 기본법의 경우 성급한 제정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라고 염려하며, 생체장기(臟器)를 배양할 수 있는 줄기세포(stem cell)는 종교와 도덕성의 논란 때문에 연구자체가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자료원: 중앙일보 10월 8일자 박방주 기자 보도. 이 기사를 편집자에게 보내주신 유타지역 동창회장 한성량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Young Professionals Party 등록서

미주 의대 뉴욕지부가 주최하는 Young Professionals Party가 11월 18일 저녁6시 Palisadium Restaurant에서 있습니다.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Remarks:

Payable to:

Ham Choon Club: \$ 45

보내실 곳: Mrs. Young Chul Kim

10 Takolusa Dr. .

Holmdel, NJ 07733

예약하실때 파티장 가까이 있는 호텔:

Best Western Fort Lee 201-461-7000

Fort Lee Hilton 201-462-9000

The Glenpoint Marriot 201-836-0600

Holiday Inn 201-94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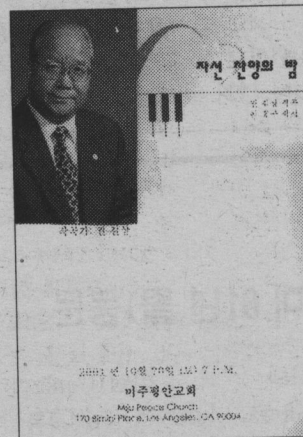
Radisson Hotel Englewood 201-871-2020

권길상 작곡 자선 찬양의 밤

작곡가 권길상 동문(음대 47년 졸)은 지난 20여년간 작곡한 작품의 일부를 발표하기 위하여

10월 20일(토) 저녁 7시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에서 자선찬양의 밤을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찬양곡들은 이흥구 작시(作詩)이다. 부활의 증인들(1),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나의 기원, 새해의 기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여, 지금 주께 나아 오라, 이런 살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들(2), 복 있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치던 목자들, 따뜻한 주의 손길, 내 영혼아 일어나라, 오직 예수, 풍성한 삶, 얼마나 기쁠까, 가을



에 드리는 감사, 나를 감동시켜 주소서 등의 11개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날 모금된 것은 전액 농아교회 지원,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선교 기금으로 전달될 것이라 한다.

워싱턴 DC 소식

제 23대회장 진금섭 동문 선출

9월 13일(목) 오후 7시 알링톤 소재 우래옥에서 개최된 워싱턴지역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진금섭 상임부회장 (약대 57년 입)이 제 23대 동창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전임 송상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문성길 전임 회장의 인사말에 이



어 사업 및 경과 보고, 재무, 감사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에는 회원 38명이 참석하였으며 상임 부회장으로 이영복동문(공대 59년 입)이 선출되었다. 새 회장에 선출된 진금섭 동문은 임기 중에 동문 주소록 발간, 서울음대 재학생 합창단 초청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기사작성 : 김국 총무)

조수미 동문 독창회 결산

상기 정기총회에서는 8월 25일 개최한 쇼프라노 조수미 동문 초청독창회 재정보고가 있었는데 총 1700여명이 입장하여 결산결과 남은 수익금 (약 4만여불)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음악회에 대한 방은호 동문의 감상기는 아래에 있음.)

◀제 23대 회장에 취임하는 진금섭 동문(좌측)과 이임하는 회장 문성길 동문. 왼쪽에 박윤수 총동창회 고문과 방은호 동문이 축하를 보내고 있다.

뉴욕지역소식

23대 회장 동창회장에 한창섭 동문 취임

이사장에 추재옥 동문, 수석부회장 김종을 동문

韓昌燮동문(문리대 정치학과 57년입)이 9월 28일 23대 뉴욕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에 취임하였다.

22대 최철용 회장으로 부터 회장직을 승계한 韓회장은 추재옥이사장(의대 63년 졸), 김종을 수석회장(사범대 55년 졸) 등 동문 다수가 참석한 취임식에서 "모든 과목을 버리고 뉴욕동창회를 동문들간의 순수한 친목단체로서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동창회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회장은 금년내 사업으로 10월 25일에 뉴욕동창회 주최 골프대회를, 11월 3일에는 음악회, 그리고

2월 22일에는 송년파티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회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2002년판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주소록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는데 주소록은 18대 최수용회장 재임시에 발간된 이후 개정되지 못하여서 동문들간의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었다.

한창섭회장은 문리대 졸업 후 62년에 동화통신에 입사하여 4년간 근무하다가 66년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Iowa대학교에서 신문학석사를 받은 후 67년부터 동화통신 워싱턴 특파원, 뉴욕지사장등을 역임한후 89년에 미주한국통신사(KPA)를 창설하여 미주동포 언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이다.

뉴욕 골든 클럽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60세 이상 동문으로 구성된 뉴욕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Golden 클럽(회장 정택수, 문리대 정치학과 50년 졸업) 제 21회 월례골프대회가 9월 27일 뉴욕시 근교에 있는 필립 로텔라 골프클럽에서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7명의 회원 부인들이 참가하여 더욱 뜻이 깊었다.

이날 메달리스트에는 정도현 동문(공대), 1등에는 박태규 동문(사대), 2등에는 고석원동문(문리대), 3등에는 신정택(약대) 그리고 근접상에는 김종을동문(사대)이 각각 차지하였고 게스트로 참가한 회원 부인중에는 정사열(법대)동문의 부인이 1등상을 받았다.

골든 클럽전통에 따라 72회 생일을 맞이한 노용면박사(의대)를 위한 생일축하 파티도 열었다.

22회 월례대회는 같은 골프장에서 뉴욕지구 동창회 골프대회와 함께 갖기로 하였다.

서울대 대학신문을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c.kr>

브라보! 조수미!

方恩鎬 <약대 42년 입학>

최고의 형용사가 어울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나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체면 마다하고 그저 한없이 '브라보'라고 큰소리 내어 외치었다. 그 많은 칭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내 나이 아랑곳 없이 .. 그토록 좋았고 감격적이었다. 기다리고 기대 가득찬 조수미 음악회가 수 천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8월25일 저녁 화려하고 상대한 가운데 있었다. 모두들 잠으로 흐뭇하며, 잊을 수 없는 음악적 경험이며 추억에 남을 저녁이 되겠지!

천사의 목소리라는 표현이 있

다. 물론 아무도 천사의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지 못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제 저녁 내 귀로 확실히 들었다. 조물주가 만드셨다면 조수미의 목소리는 바로 천사의 그것이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옥 같은 구슬을 은쟁반에 굴리듯, 때로는 깨끗하고 맑게 흐르는 잔잔하고 조용히 속삭이는 시내 물소리 같이, 때로는 험한 산 준령 정상에서 울려 퍼지는 뇌성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악기인 그의 전체 몸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송고하면서도 감미로운 환희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 함께 뭉진 맑은 수정체(水晶體) 라고 할까?

성악 중 육체적으로나 기교면에 있어서 제일 어렵다는 콜로라트라는 말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세



계적 정상 급은 더 드물다. 그런데 우리의 조수미가 그 중에 서도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확증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라 트라비아타에 비올렛다의 사랑의 노래, 앙콜로 불러준 감격여린 금강산(金剛山) 등 황홀하게 들었다. 밤새도록 불러주었으면 했다. 노래하는 조수미와 청중이 한 파장(波長)으로 어울려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늦은 여름, 멋 있는 음악의 향연이었다. 역사적인 음악회로 될 것이다.

이런 귀한 음악회의 결실은 우연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노래하여준 조수미, 준비로 오랫동안 봉사한 많은 분, 오신 청중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임원진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이루어 지었다. 질서도 분위기도 좋았다.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다. 이 글을 마친 오늘 아침 막 읽었다. 워싱턴 포스트지(8/27/01)의 음악평론가의 격찬에 찬 논평을 꼭 읽기 바란다. 그의 음악회가 줄 커다란 영향과 장래는 무한하며 기대하는바 크고 또, 기다려진다.

나는 우리 한국의 자랑이고 보배인 조수미를 아끼고 사랑한다. 다시 한번 크게 브라보 조수미라고 부르며 한 송이 빨간 꽃을 던진다.

부고

河祥培(의대 61년 졸)동문

하상배 동문이 9월 19일 서울에서 갑자기 별세하였습니다.

하동문은 66년도에 渡美하여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NY)에서 재활의학과 주임교수와 과장을 지내고, 95년 귀국하여 현대 중앙 병원 재활과 과장직을 맡아 한국 재활의학계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인 수련여

사와 세 따님(Conie, Gloria, Judy)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대 병원장으로 장례를 지냈고 화장한 유해를 NY으로 유가족이 운구하였습니다. MEMORIAL SERVICE는 오는 9월 29일 토요일 Glen Cove, Long Island에서 거행 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큰딸 Connie 516-759-7598

<투고자 권순홍 동문>

부고

趙鴻(의대 61년 졸)동문

조홍 동문이 9월 30일 오전에 숙환으로 별세하였습니다.

1965년도에 도미한 조동문은 NY-Bellevue Medical Center에서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유명한 Karen Horney-정신분석원에서 정신분석학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 획득후, 몇몇 병원을 거쳐 South Nassau Community

ospital (Long Island, N. Y)에서 오랫동안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1년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Sally와 딸 Sarah, 사위 Peter, 아들 Stanley 와 손자 동현이는 모두 New York에서 살고 있습니다.

<투고자 권순홍 동문>

뉴잉글랜드 소식

자랑스런 제 2세대들

수지 尹, Tanglewood Junior Orchestra의 Cellist



윤용훈 동문가족들, Mrs. 윤, Samanthad, Susie와 윤박사.

청명하게 펼쳐진 늦여름의 신선한 공기는 물론 넓은 잔디밭에 펼쳐진 '피크닉'을 즐기면서 BSO Summer Intern들로 구성되어진 Tanglewood Junior Orchestra의 연주를 감상하기 위하여 서서었는데 여기는 이제 갓 Freshman을 마친 윤용훈(공대 66입) 동문의 자녀인 Susie가 Cellist로 활약하고 있었다. Susie는 현재 Northwestern University의 음악대학에서 Mr. Hansen의 특별지도를 받고 있으며 Acton, MA 소재 Acton Highschool에 다니는 동안 첼로에 특별한 재질을 나타내었고, 당시는 BSO의 Sato Knudsen에게서 사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Greater Boston Youth Symphony Orchestra의 수석 Cellist로 활약하였다.

Tanglewood Institute의 Summer Internship Program은 음악석사과정의 학생들도 입학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갖게 된 Susie양은 앞으로 더욱 음악에 정진할 계획이며, 머지 않은 장래에는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훌륭한 Cellist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Boston 하게되면 Harvard, MIT 등등의 명문대학들이 연상되고, 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Children's Hospital 등의 세계적인 의료시설이 생각나지만 그 역사가 깊은 Boston은 Boston Symphony Orchestra, Boston Pop Orchestra 등의 무대로서 역사, 문화의 도시이다. 특히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우리의 동문인 황보영(음대 65입)씨가 바이올린 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번 회보를 통해서 소개한 바 있는 남혜정 (음대 91입)동문은 지난 5월 19일과 22일, 양일에 걸쳐서 Boston Pop Orchestra (Boston Symphony Orchestra 멤버들로 구성되어짐)와 의 초청협연으로 플루트를 독주하는 등 우리와는 인연이 많다.

필자는 지난 8월 19일에 Boston Symphony Orchestra (BSO)의 여름무대인 Lenox, MA소재 Tanglewood Institute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KSEA) 동정

한미 한인과학자 학술대회 MIT에서 개최

재미과학기술협회(회장: 성낙호 공대 '60 입, 뉴잉글랜드 지부장: 김동환, 공대 '76입)는 2001년 8월 10일부터 2일까지 M.I.T. 대학에서 한미 한인과학자 학술대회(UCK-2001)를 개최하였다. "New Frontier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Global Prosperity"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는 국내외에서 350여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석하여, 260여 편의 논문을, 생명공학, 자연과학, 공학 등에서 스펀네 분야로 세분하여 발표하였고, 북학과의 과학기술교류, 차세대 재미동포들의 과학기술개발과 참여 등의 세계의 특별 포럼이 따로 열렸다. LG 전자, 삼성 등의 대기업들의 전시와 함께, 저녁에는 SK Telecom에서 마련한 보스턴항구 크루즈등의 프로그램도 곁들여 참

가자들이 역사적인 보스턴 구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대회는 벌써 30년의 역사를 가진 재미과학자협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앞으로 한국

과 미국의 한인 과학자들의 상호 교류, 이민 2세의 과학기술자들에게 대한 밝은 희망을 보여 주는 성공적인 학술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성낙호 동문



모교 대학신문 취재팀 뉴잉글랜드 방문

모교의 대학신문의 학부재학생으로 구성된 취재팀이 하버드대학과 MIT대학을 취재차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뉴잉글랜드 지역 (뉴잉글랜드지역 동창회장, 이재신, 공대 57입)을 방문하였다.

서지현 취재 2부장(외교학과 98입), 석선혜 취재부장(국어교육학과, 99년 입) 그리고 소재용 사진부 기자(미학과, '00년 입)로 구성된 3인 취재팀으로 9월 11일 일어난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을 방문하여 3일간 취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월 3일 아침 다음 목적지인 San Francisco로 떠났다.

이들은 10월 8일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여 윤상래 전총무, 정정욱 부회장, 윤용훈 재무, 변종원 총무에게 방문동안 배풀어 주신 여러 동문들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 왔다.

<사진 2면 하단 참조>

재미 과학기술자협회 역대 회장 명단

<편집자 주: 91호 16페이지에 게재된 재미 과학기술자협회에 관한 보도에 있어 역대 회장단의 소개가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전체 명단을 게재함>

- 1대 회장: Shoon Kyung Kim, Temple Univ.
- 2대 회장: Ki Uck Lee, Marquette Univ.
- 3대 회장: Inyong Ham, 작고
- 4대 회장: Young Bae Kim, USC
- 5대 회장: Chong Hwa Pyun, 작고
- 6대 회장: Hongil Kim, 작고
- 7대 회장: Sang Il Choi, 포항공대
- 8대 회장: Je Hyun Kim, 작고
- 9대 회장: Kwang Bang Woo, 연세대학교
- 10대 회장: Yong Nak Lee, Heat Transfer S&T
- 11대 회장: Kyung Sik Kang, Brown Univ.
- 12대 회장: Jae Young Park, NC State Univ.
- 13대 회장: Chon-Mo Park, 포항공대
- 14대 회장: Dong Han Kim, 포항공대
- 15대 회장: Ki Hyun Kim, NC Central Univ.
- 16대 회장: Soon Kyu Kim, Univ. of CT.

- 17대 회장: Kwang Kuk Koh, Chrysan Industry, Inc.
- 18대 회장: Chin Ok Lee, 포항공대
- 19대 회장: Chai Chin Suh, Korea Heavy Ind.
- 20대 회장: Moo Young Han, Duke Univ.
- 21대 회장: Kun Sun Hyun, PI
- 22대 회장: Hyo-gun Kim, K-JIST
- 23대 회장: Moon Won Suh, NC State Univ.
- 24대 회장: Dewy D. Y. Ryu, UC-Davis
- 25대 회장: Saeyoung Ahn, 서울대학교
- 26대 회장: Kyong Chul Chun, Argonne Nat'l Lab.
- 27대 회장: Ki Dong Lee, Univ. of Illinois & 서울대학교
- 28대 회장: Thomas(Hong-Taik)Hahn, UCLA
- 29대 회장: Howard Ho Chung, MITEC Int'l. Inc.
- 30대 회장: Nak Ho Sung, Tufts Univ.

<자료원 : KSEA 29:2 (May 2001)>

시카고지역 소식

시카고지역 제 3차 이사회

시카고 지역동창회(회장 조대현) 2001년도 제 3차 이사회가 10월 13일 6시에 Oak Brook Hills Hotel and Resort(Kensington Court 3500 Midwest Road, Oak Brook, IL)에서 열렸다. 이사회 회의는 1. 개회선언 및 정족수 확인 (사회자: 강영국부회장), 2. 회장인사(조대현 회장), 3. 참석이사소개(사회자), 4. 제 2차 이사회 회의록, 차차기 회장(2003)추천, 인준(조대현 회장), 5. 차차기 회장(추천)인사, 차기 회장단 및 감사 추천, 인준 (한재은 차기회장, 조대현회장), 6. 장학생 선발 중간보고 (조대현 회장), 7. 회원명부 발간 진행보고 (배중면 편집), 8. 추계 Golf 대회(강영국부회장, 전현일 재무), 9. 지역사회봉사(장기남 홍보), 10. 단과대학 동창회 현황, 총회 및 연발 파티 준비(조대현 회장), 11. 폐회(사회자)순으로 진행되었다.

제 3차 이사회 주요 결의/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지명위원회(위원장 김정주)의 결정을 수용하여, 2002년도 수석부회장/2003년도 회장으로서 장기남동문(문리대 62입)을 총회에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인준 가결했다.

2. 차기(2002년도)회장단 중 부회장 2명은 한재은 차기 회장이 추천한 김동희동문(공대), 황치용 동문(문리대) 두동문을 총회에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인준 가결했다.

3. 차기(2002년도)감사에는 이수인동문(의대), 전현일동문(농대) 두 동문을 총회에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4. 금년도 장학금 신청자는 전부 10명이다. 모든 신청서류는 전선발위원회에 우송되었고 오는 10월 18일에 선발위원회 모임을 갖고, 5명 내지 7명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5. 회원 주소록 개정판(Directory 2002)이 금년에 발간된다. 많은 동문께서 광고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6.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11일에 일어난 대참사 희생자를 위한 성금(\$500)을 시카고 한인회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기하여 시카고 노인 복지 센터에 성금(\$500)을 기증했다.

문리대 신입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최길용 동문, 최근 발족한 음대 동창회 회장 김선영 동문의 소개가 있었다.



왼쪽부터 권택중(치대 86졸) 이철주(치대 61입) 서승환(치대 61졸) 소진문(치대 62졸) 차창선(치대 81졸) 하청윤(치대 졸)

치과의사 동문들 대 교민 봉사활동

지난 10월 13일(토) 시카고 한인복지회 주관으로 Korean Health Fair가 시카고 북쪽에 위치한 Swedish Covenant Hospital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환 330명의 검진과 건강상담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가 단체인, 시카고 한인의사회, 한인치과의사회, 한인약사회, 한인간호사회와 의사부인회의 협동으로 교민들의 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을 위한 연례행사로 이곳

한인사회의 큰 행사중에 하나이다. 시카고 서울치대 동창회(회장 서승환 치대 61졸)의 적극적인 독려로, 참여한 치과의사 총 8명 중 6명 서울대 동창회원이었다. 이 봉사활동에 일리노이대학교(UIC) 치과대학생 4명이 동참하였으며 참여한 동문은 아래와 같다.

서승환 (徐承煥 치대 61 졸) - 시카고 서울대 치대 동창회장
소진문 (蘇鎭文 치대 62 졸)

시카고 한인치과의사회 명예회장 이철주 (李鐵周 치대 61 입) - 시카고 한인치과의사회 회장
하청윤 (河淸潤 치대 87 졸) - 시카고 한인치과의사회 재무
차창선 (車昌宣 치대 81 졸) - UIC 치대 FELLOW
권택중 (權宅重 치대 86 졸) - UIC 치대 FELLOW
참여한 동문들은 진료와 상담에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리고 참가한 모든 치과환자들에게는 한인치과의사회에서 준비한 칫솔과 치약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하청윤 동문 제공)

문리과대학 시카고 지역동문회

문리대 동창회(회장 최길용, 57년 입)는 지난 10월 20일 저녁 쌍용식당에서 미주 관악 후원회를 돕기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기억(47년 졸)동문부부를 포함하여 2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최길용회장의 인사에 이어 송순영 재미 총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52년 입)의 축사 및 임시총회 취

지설명이 있었다. 이에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후원회사가 되기로 약속하였고, 즉석에서 회장을 포함한 여섯 동문들이 \$1,700을 모아 송순영부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모임의 송순영 부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회의후 여흥을 즐기며,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우중(雨中) 골프 대회

강영국 <부회장, 수의대 67입>

시카고지역 동문회의 추계(秋季) 골프대회는 언제나 토요일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골프장의 차로 부득이 일요일로 밀리고 나니, 전날과는 달리 하늘이 노란 듯 일기가 성난 시어머니로 변해 버렸다. 어랍소, 불어닥친 바람이 비를 몰고 온데다 기온까지 폭 떨어져 골프 날씨론 맞춤 주문한 듯 사나웠다.

32명의 동문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6분이 실무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힘들게 나와주셨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골프장은 강물처럼 빗물만 흐를 뿐, 하늘은 추호의 양보도 없다. 雨上加水로 골프장을 공식적으로 닫는다는 클럽하우스의 통보다. 그렇다면 전현일 동문께서 특별히 주문해온 '김밥은 어떻게?' 에 초점이 돌려졌다. 바깥에 처진 텐트속에서 먹자니 날씨도 싸늘한데 그 또한 모양새가 구슬픈지라 어떻게나고 머리를 짜는데, "웬다 되었구나 땡 이로 구나!". 물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이 어인 패재가 아닐쏘나? 3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앞서랑 뒤서랑 차량행렬을 지어 밖에서 집안으로 소풍을 갔다. 어린 시절엔 걸어서 산으로 가던 소풍을 이제 차를 타고 산에서 집안으로 소풍을 가는가?

마치 해인사 절간같이 계곡 위에 들렁 드리우진 집 뒤뜰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저 아래쪽엔 마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이라도 할 듯한 작은 호수가 명경처럼

맑고 산뜻하다. 평지인 중서부에서 보기 드문 계곡 위의 절경의 집이다. 주인장의 마음처럼 금새 풀려 나온 뜨끈뜨끈한 보리차에 곁들인 김밥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더불어 장동문의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해박한 山蔘 강의를 받아 모두의 기운이 잔뜩 충전되어 있는 판에 햇살이 싱긋 왕크를 한다.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다시 골프장으로 향했다. 더러는 9번째 홀을, 더러는 4번째 홀을 치는 사이에 하늘에선 비가 아니라 물둥이로 물을 쏟아 붓는다.

모두가 생쥐 꼬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 그 옛날 대학 시절 이런 비 한번 맞았다고 마음마저 수그러진 일이 있었는가? 마로니에의 낭만을 아직도 마음깊이 간직하고 있는 서울대인의 낭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한 사람 빠짐없이 <코리아 가든>으로 향했다. 맥주 한잔의 정취와 푸짐한 음식과 훈훈한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젖었던 옷들은 말짱하게 말라 있었다. 조대현 회장님의 추계 골프대회는 비공식대회로 끝나버려, 비록 상품은 빗줄기 따라 증발해 버렸다해도 아마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리다.



관악후원회 기금모금을 위한 동문회에 나온 동문들. 좌로부터 김병윤 부회장, 최길용 회장, 이기억 선배님과 부인, 송순영 관악부회장, 조석제, 황치용, Mrs. 임근식. (뒷줄 최희수 총무, 임근식, 이규창 동문)



조지아 관악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Georgia Chapter

4315 Clipper Bay Rd. Duluth, GA 30096 (Tel)7-449-0301 Oct.2001

회장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9월이 다 지나가면서 이곳 겨울하늘도 고국의 가을을 연상할 만큼 파랗게 드높아 가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WTC에서 뿜어대는 검정 연기가 지구만 눈앞을 가리는 것은 아닐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동문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 친구들 모두 별일 없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N.Y. Terror 참사로 인한 이곳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로 얼룩진 아픔을 이곳에서는 우리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인회에서 별다른 모금 운동에 참여하여 급하게 동문들에게 연락하여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1,180을 모금할 수 있었고 그 전액을 9월 25일 한인회를 통하여 미국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신 동문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연락이 안된 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학교 동문회중에선 서울대 동문회가 유일하게 한인회 모금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Get Back To Normal"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주계야유회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니 모두들 참여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아울러 2001년을 장식하는 송년회에도 지금부터 미리 일정을 잡아두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유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김재철 배상

테러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성금 전달

-서울대 동창회 조지아 지부

서울대 동창회 조지아 지부는 소정의 성금을 모아 희생자 가족들에게 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인간이 갖는 중요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만행으로 빚어진 이 참사 앞에서 애통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금에 참여해 주신 동문들의 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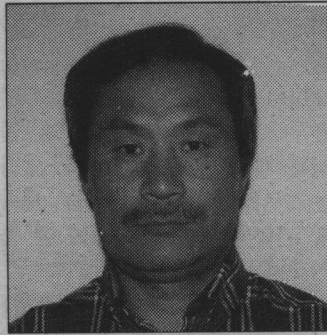
- 장부용, 권민자, 기인석, 김관택, 김성태, 김수일, 김예순, 김승권, 김승우, 김재철, 김경희, 김재호, 김중구, 김준휘, 김진우, 문중현, 박민, 박진기, 사성주, 유우영, 양세우, 은결수, 이광호, 이경희, 이진수, 이원남, 이철희, 임수암, 임한용, 강병권, 조덕성, 주중광, 지수남, 최진

성금 총계 : \$1,180



조지아지역 소식

조지아 관악회보 발간



조지아지역 동창회(회장 김재철·사진)는 계간으로 Newsletter 발간을 시작하여(발행인 김재철회장) 4월에 첫 호를 내고 7월

에 제2호, 10월에 제3호를 발행하여 "조지아 관악 회보"로 명명하였다. (회보명은 동문들에게 공개 공모하였는바 김예순 동문의 서울 조지아회보, 석창일 동문의 Veritas Lux Mea, 백낙영 동문의 Saga, 박종홍 동문의 진리탐구, 객근세 동문의 서울대학창소식과, 방선작인 은결수 동문의 조지아 관악회보 등이 제안되었음).

회보의 편집위원으로 조덕성, 객민자, 이정희 동문과 문중현 동문 부부, 김재호 동문 부부 등이 수고하고 있다.

WTC 테러 참사 희생자를 위한 성금 전달

김재철 회장 외 33인의 동문들은 성금 \$1,180을 모아 테러 희생자 가족을 돕기 위하여 9월 25일 조지아 한인회를 통하여 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서울대 대학신문을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c.kr>

재정자립 기금 적립 시작

조지아 지역 동문회는 재정 자립을 위해 연간 1,000불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키로 하였다. 1989년 창립 이래 발전하고 있는 조지아 지역 동창회는 해마다 모금과 성금으로 1,000불 이상씩 적립하여 재정 자립을 이룩할 계획이다 (김재철 회장 4월 창간사에서)

동창회 춘계 야유회

지난 5월 6일 Red Top Mt.에서 30여명의 동문가족이 모인 가운데 재미있는 발야구와 빙고게임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경품추첨에서 1등상으로 이정희 동문의 부군인 서울한의원 이상용 원장님이 기증한 녹용을 이경훈동문(서울국제여행사)이 받았다.

동창회 친선 골프 모임 개최

동창회 골프 동호인의 체력단련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골프모임이 지난 8월 5일 (일) Lake Side Golf Club에서 열렸다. 김재철, 문중현, 안수웅, 유우영, 김준휘, 김수일, 지승남 동문등 7명이 참석하여 우천에도 불구하고 Hapeville에 위치한 City Garden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개별 동문 동정>

*김성태 (공대 '64)

지난 8월 12일 도라빌시 주최로 개최된 광복절 기념 한인 올림픽에 참여하여 6.5Mile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3등을 하였다.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김동문의 강건함에 박수를...

*장병건 박사 (보건대학원 '64)

지난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01년 하계 내셔널 시니어 올림픽대회의 테니스 부문에서 4등, 경보에서 3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장 동문은 한인으로 유일하게 참가하였고 이처럼 80이 넘는 연세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장 동문은 지난 5월 27일 회혼(回婚)식을 코리아가든에서 성대히 치르고 기념으로 한인연합장로교회에 3만불의 장학금을 기증하셨다.

*노행자, 최선호, 안아혜

Buford Hwy에서 5만 아들란타 한인 교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3 동문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는 5465 Buford Hwy

노행자, 최선호 보험 - Suite 208
안아혜 변호사 - Suite 202

*김수경(음대 '89), 객민자(음대 65)

지난 8월 19일(일요일) 저녁 7:30 Peach Primè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안익태의 Korea Fantasy와 베토벤의 Choral Fantasy를 연주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이 공연에서 김수경동문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객민자 동문의 뒤를 받침하는 협창이 어우러져 Gwinnet Civic Center를 가득 메운 청중들을 향수와 환희에 젖게 했다. 동문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조덕성 동문의 둘째 따님(조정현)이 반박자 늦게 김수경 동문에게 증정하여 동문간의 친목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박민(음대 '80)

박민 동문은 아들란타 지역의 교민과 현지 미국인, 유학생 그리고 갓 이민 오신 분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www.invill.com을 열었다. 동 계시관에는 한인타운 계시관,

중고차판매, 이민문학, 옥션 사이트를 비롯 조지아지역 각종 주소록, 버룩시장, 구인/구직, 나상의 나뉘터, 상담코너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서울대 동문들을 위하여 동아리 게시판을 마련해 놓았는 바, 이 게시판은 누구나 읽을 수는 있되 글은 동문들만 올릴 수 있게 해 놓았다.

*석창일 (문리대 '63)

지난 5월 25일 Deco Art Gallery 개업식을 하였다. 개업식에는 많은 친지들과 동문(김재철 회장 부부, 객민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주소: 11550 Jones Bridge Rd. Alpharetta, GA 30022, 전화:678-297-0904)

*정승우 (경영대 '83)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Marketing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7년간의 정든 Atlanta 생활을 마치고, New York 주의 Albany (SUNY)에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김예순 (문리대 '68)

김예순 동문의 둘째딸 김지은양이 올해

hamblee High School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University of Chicago에 진학하였다.

*임한웅 (공대 '60)

Mrs. 임한웅께서 건강식품 전문점인 GNC를 개업하였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2090 Dunwoody Club Dr. Dunwoody, GA 30350 770-671-9190.

그리고 임 동문의 둘째아들 임동재군이 MCG에 입학하였다.

*임수암 (공대 '62)

임동문의 둘째아들인 임홍진군이 MCG를 졸업하고 메릴랜드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

*유우영 (의대 '61)

유동문의 큰 아들인 유재민군은 5월 4일 MCG를 졸업하고 7월 1일부터 메릴랜드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

그리고 5월 26일 볼티모어에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才媛)과 결혼식을 올렸다.

조지아 송년회 모임 안내

기다리던 송년회가 11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격조높은 HOLIDAY INN (SELECT, ATLANTA PERIMETER DUNWOODY)에서 최고급 만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달력에 11월 30일을 동그라미 쳐 놓아주시시오. 모두가 참석하셔서 기억에 남는 송년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트랜드지역 소식

제 5차 정기 동창회 및 동창의 밤

지난 9월 29일, 캔사스 시 다운타운에 위치한 워싱턴 크라운 호텔 볼룸에서 하트랜드 지부 제 5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알칸사스, 미주리, 위차타 캔사스, 오클라호마 등 자동차로 3시간 이상 운전하여 6개주로부터 약 80여명의 동창 및 동창 가족이 참석하였다. 이날의 동창의 밤은, 김호원 하트랜드지역 동창회장(치대 52입)은 개회 인사에서, "6개주로 구성된 하트랜드는 지리상의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동창들의 협조 및 참여의사 때문에 오늘의 발전된 하트랜드 동창회가 가능케 되었음" 을 강조하며, 그동안 협조해준 동문들에게 심심한 감사 표현과 동시에 차기 회장단에게도 더 많은 봉사정신 및 참여의식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히 김회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훗날 노교와 후배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란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동창회의 사명과 활동을 위

해 동창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하였다. 이어 본 지부 동창회 모임을 위해 특별히 시카고에서 참석한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공대 48입)의 축사가 있었다. 이용락 재미 동창회장께서는 축사에서 재미 총 동창회장으로 취임한후 처음으로 지부 동창회 모임에 초청받았고, 따라서 많은 동문들의 화기에예한 모습을 대하니까 이번 모임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일정을 조정하였는데, 만사를 제치고 참석하 보람이 있다는 인사말과 함께 동창회보 구독 및 관약후원회 기금운동에 전 동창회원들의 동참을 부탁하였다.

전선옥 장학위원회 간사(법대 50입)의 장학생 선발과정에 관한 보고에 이어 김용환 이사장(의대 45입)으로 부터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올해의 장학금 수혜자는

오클라호마의 성진경양, 알칸사스의 박은영양, 캔사스의 최보배양 이 대학진학생으로, 아이오와의 박용락동문(농대 89입)이 대학원생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구명순 재무(간호대 66입)의 재정보고 및 배규태 사무총장(사대 61입)의 사무보고에 이어, 안건토의 및 의결에서는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경영학 과정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상문 수석 부회장(상대 57입)의 차기회장으로 인준하였고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는 아이오와 대학의 석좌교수 정동학 현 부회장(공대 55입)을 임명하고, 감사에 현 이재명감사(의대 59입)를 재인준했다.

이어 이번 총회로 임기를 마감하는 김호원회장께서 임원들에게 주는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하트랜드 지부기를 李相文 신임회장에

게 이양하였다. 취임사에서 이상문 신임회장은, 슬로온-박사(MIT의 경영대학원의 상진)의 일화를 들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슈는 좋은 이슈가 될 수 없다" 면서, 이교락 명예회장 및 전임 김호원회장께서 다져 놓은 동창회의 기반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며 운영 발전시키겠다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에는 시간을 절약키 위해 저녁 만찬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했던 친선 골프대회의 시상식이 있었다. 최적의 기후조건하에, 거리는 비교적 짧으면서도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글랜드 골프장에서 동문가족 34명이 지역별 선후배 및 남녀 골고루 조를 짜서 오랫동안 갖고 닦아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21면에 계속>

필라델피아 소식

필라 동창회 장학기금 모집

필라지부 동창회(회장 강영배, 수의대 59입)는 금년 회기 제 1차 동문 친선 Golf 모임을 8월 25일 Ashbourne country club에서 골프회장 제갈은(문리대 63졸)동문 주관 하에 있었고, 제 2차 모임이 9월 23일 Skipack Golf Club에서 있었다.

이 날 친목 Golf 모임 후에 LaiLai Restaurant에서 첫 이사

회가 있었다.

전원이 입상한 시상식에 이어 강영배 회장은 인사말 통해 금 회기 사업계획으로 필라지 동창회 장학기금 모집에 대해 설명하고 우선 회장단으로부터 \$1200을 모금한 바 있으며 많은 동문들이 동참하여 보람있는 동창사업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12월 1일에는 지부 총 동창

회 및 연말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리 서로 연락하여 많은 분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어서 이번 첫 교양강좌가 (아래사진) 연사인 Villanova 대 경영학 교수 정규병 동문(공대 82졸)으로 부터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란 제목으로 있었다.

광범위한 논제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신 정교수께서는 본 필라지부 동창회를 위하여 2번이나 총무로 수고하신 헌신적인 동문이다.

<투고자 주기목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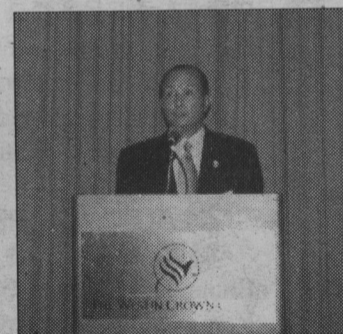
사회자 배규태 사무총장(좌)와 동창회기를 인계인수하는 김호원(중앙)과 이상문(우) 신임 하트랜드 지부 회장.

정규병 교수 교양강좌



필라델피아 지역동창회가 주최한 정규병 동문(Villanova대 교수)의 교양강좌에 참가한 동문들.

뒷줄 좌로부터 강영배(수의대 59입, 지부회장), Mrs. 강영배, Mr.손재옥, Mrs. & 김국간(치대 64입, 부회장), 손재옥(가정대 77입), 이성숙(가정대 74입), 홍종환(문리대 75), 제갈은(문리대 59), 정학량(약대 56입), 김길선(문리대 69졸), 윤정나(음대 57), 정덕준(상 67졸), Mrs. 정규병, 최현태(문리 69졸), 정규병(공대 82졸), 주기목(수의대 68입), 앞줄 좌로부터 Mrs. 최현태, 윤석희(치대 68입), Mrs. 제갈은



이임사를 하는 김호원 회장



취임사를 하는 신임 이상문회장



9월29일 하트랜드지역 동창회 동문의 밤 만찬장에서. 좌로부터 Mrs. 김호원 회장,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이상문 신임회장, 정동학 차기회장 부부, 이교락 명예회장 부부와 장학회 이사장 김용환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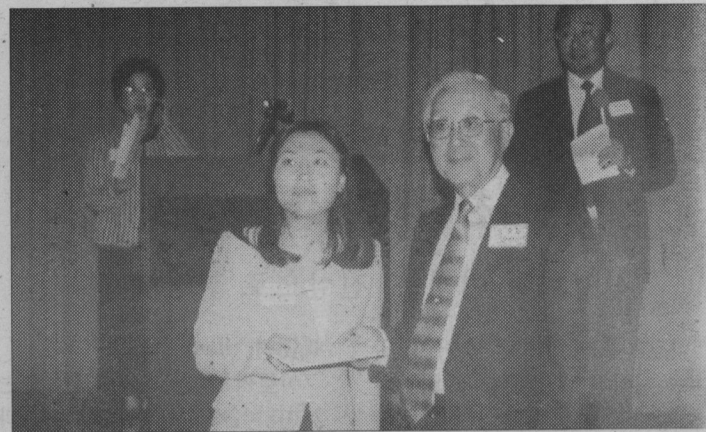
하트랜드지역 동문의 밤



축사를 하는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



골프대회 그로스 챔피언(하트랜드 회장배)이 된 배규영동문(사대 68입)과 김호원 회장.



4명의 장학금 시상식, 수상자 박은영양과 장학위원회 김용환 이사장(의대 45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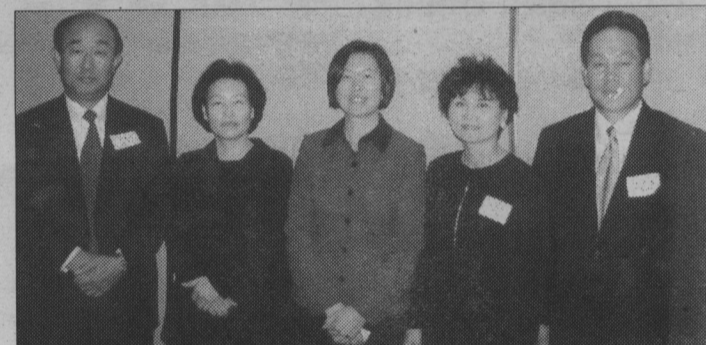


골프대회 참가자 뒷줄(좌) 이치현(약대 77입), 이인석(고성희 치대 85입), 김백년(의대 52입), 윤수현(상대85입)배규영(사대68입) 함명진(상대 84입) 민종식(상대 56입) 조영신(상대 86입) 이억원(상대 87입) 김계윤(의대 57입) 최정일(경영대원 90입) 장명우(치대 83입) 임승배, 이재명(의대 59입) 하동수(문리대 86입) 김동환(상대 68입) 지인섭(의대 61입) 이준기(공대 80입) 이상문(상대 57입) 황학주(상대 56입) 이교락(의대 53입) 배규태(상대 61입) 홍기영(상대 82입)

앞줄 Mrs. 김백년, Mrs. 배규태, Mrs. 지인섭, Mrs. 김계윤, Mrs. 이재명, Mrs. 민종식, Mrs. 김호원, 오명순(가정대 69입) (사진에 없는 동문가족 - 김용환(의대 45입), 오테오(의대 56입), 김명자(문리대 62입))



참석동문들에게 댄스시범을 보이는 이재명 (의대 59입)동문 부부



하트랜드 임원들. 좌로부터 배규태 사무총장 부부와 이해승 동문(중양)과 배규영 편집인 부부.



이입하는 김호원 회장 부부와 정동화(공대 55 입학) 차기회장 부부.



골프대회 총 동창회장배를 수상한 지일성 동문(의대 61 입학)에게 이용락 총동창회장이 Moving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21면에서 계속>

특히 이날에는 전임 오인석 재미 동창회장이 기증한 Moving Trophy 그랜드 챔피언에 6언더(80타)를 기록한 지일성동문(의대 61입)이 차지하였고, 하트랜드 동창회장배 그로스 챔피언에는 배규영 동문(사대 68입)이 차지하였다.

제 2부 순서에서는 장대홍 명예 회원(전 위치타대 범죄학 과장)의

주제 강연으로 "21세기의 범죄"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9월 11일의 테러사건과 시의 적절하게도 그 정서가 잘 맞는 주제 발표에서 장박사는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각 전문분야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21세기의 범죄 특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WTC 테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재 반성하며, 남을 위한 봉사와 단결이 필요한 때임을 강

조하였다. 이어 1부 및 2부 순서를 진행한 배규태 사무총장(상대 61입)의 제의로 각 동창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가, 고향의 봄 및 친구의 이별 등의 합창이 있었다. 이 날의 마지막 순서로 이재명 동문(의대 59입) 부부의 볼룸댄스 시범 및 "How to Dance"지도가 있었는데 각 테이블에서 대표로 한 커플씩 앞 플로어에 나가, 단체로 교습을 받으면서 볼룸댄스를

즐겼다. 순서 순서 사이에 오명순서기(가정대 69입)와 함완근섭의(공대 83입)가 여러동문으로부터 기증받은 텔레비전 및 프린트, 스캐너 등 각종 푸짐한 경품추천으로 더 한층 흥을 돋우었으며 특히 이날 참석한 동문들을 위해 김호원 회장께서 각종 의료 및 보험회사로부터 여러가지 샘플을 기증받아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로 하여금 모두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귀가토록 준비하였다. 한편 이날에는 어린아이들의 베이비 시트를 위해 이치현 학생부장(약대 77입)이 수고했으며 민박주선을 위해서는 김계윤 부회장(의대 57입)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동창회 밤 다음날 아침에는 인근 지역에서 참석한 모든 동문들 가족을 위해 창립 때부터 내려온 관례대로 김호원 전회장과 이상문 신임회장 초청조찬이 동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모교소식

2000학년도 후기 졸업 총 1천5백5명 학위 받아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200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범대와 생활과학대를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원)별로 거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총 1천5백5명으로 학사 7백49명, 석사 4백18명, 박사 3백38명이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6만8천2백5명(준회원, 단과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분	8월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107	8,275
사회과학대학	107	10,543
자연과학대학	57	8,274
가정대학	19	3,140
간호대학	-	2,931
경영대학	50	4,884
공과대학	160	33,886
농업생명대학	65	17,824
문리과대학	-	9,731
미술대학	13	4,151
법과대학	45	13,890
사범대학	97	22,460
상과대학	-	6,723
수의과대학	3	1,920
약학대학	-	5,468
음악대학	26	6,096
의과대학	-	9,718
치과대학	-	5,305
대학원	680	61,631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39	2,543
사범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21	3,699
환경대학원	16	1,728
소계	1,505	246,946
준회원		13,338
(단기과정)		7,921
총계		268,205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에 생물자원공학부 柳寬熙교수

지난 8월 1일자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임 학장에 생물자원공학부 柳寬熙(67년 農大卒)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柳학장은 67년 모교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72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생물자원



공학부장, 농생대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允植교수 등 18명 정년 및 명예 퇴임

지난 8월 31일 교수 18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는 李基俊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정년퇴임 교수가족 등이 참석했다. 퇴임식 행사 후 호암교회관에서 송별 오찬을 가졌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允植교수(국어국문학), 閔丙

秀교수(국어국문학), 李相沃교수(영어영문학), 安秉直교수(경제학), 李將鎬교수(심리학), 康賢斗교수(인문정보학), 朴炯錫교수(화학), 李潤榮교수(화학), 李仁圭교수(생명과학), 安元榮교수(생물자원공학), 車京守교수(사회교육), 尹世哲교수(역사교육), 李成千교수(국악), 李迎雨교수(의학), 李裁興교수(의학), 梁源植교수(치의학), 尹壽漢교수(치의학), 吳錫泓교수(행정학).

4·19기념탑 이전 두레문예관 앞 공터

모교는 4·19혁명이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경제성장파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하나의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의 현 위치가 캠퍼스의 외진 곳에 있어 그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기념탑을 이전, 4·19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기로 했다.

이전될 위치는 관악캠퍼스 두레문예관 전면 공터(약 3,500㎡)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기념탑 이전과 함께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7월부터 기념탑 이전에 관한 학내외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세부조정계획을 확정해 9월부터 이전공사를 시작,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기·컴퓨터공학부 李信斗교수 6억원 상당 주식 모교에 기증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李信斗(80년 自然大卒)교수가 인문·사회 등 기초학문 육성과 공학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6억원 상당의 벤처기업 주식을 모교에 기증했다.

지난 8월 19일 李교수는 액정 표시장치(LCD) 개발 벤처기업인 (주)스마트디스플레이사의 주식 30만주를 모교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지난 7월 주식 납입을 약속하면서 3분의 1씩 나눠 인문·사회대, 공대, 전기공학부에 각각 10만주씩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李교수는 미국 브랜다이스대에서 액정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벨통신연구소를 거쳐 서강대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기계항공공학부 金承祚교수 초저렴·고효율 슈퍼컴퓨터 완성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金承祚(73년 工大卒·사진)교수팀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한 펜티엄Ⅲ급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64개를 조립, 3천만원대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슈퍼컴퓨터란 계산속도가 현재 사용되는 PC보다 수백에서 수천배 빠르고 많은 자료를 오랜 시간 꾸준히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로, 현재 모교가 보유하고 있는 IBM 슈퍼컴퓨터의 경우만 해도 구입비가 30억원이나 들었다.

에어로 탱크(Aero. Tank) 1호로 이름이 붙은 이 슈퍼컴퓨터는 오는 11월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터 학회 2001」에서 초저렴·고효율 부문에 수여하는 고든벨(Gordon

Bell)賞 최종 결선까지 오른 상태이다.

金교수는 「이 기술이 활성화 되면 슈퍼컴퓨터 한 대당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원씩 해외에 지불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며 연구실 홈페이지(aeroguy.snu.ac.kr)를 통해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金顯場교수 등 8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는 지난 7월 18일 金顯場교수 등 8명을 새로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이번에 새로 추대된 명예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顯場교수(서어서문학), 成百仁교수(언어학), 元鎬澤교수(심리학), 任京淳교수(동물자원과학), 朴應鏞교수(수의학), 馬点述교수(수의학), 趙忠鎬교수(수의학), 孫同銖교수(치의학).

祝 發展 서울 大 學校

동문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서울대인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는 그간 우리를 키워준 母校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知性人의 産室로 발전 高揚시키기 위하여 모교 돕기 백만불 기금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동문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이 목표의 結實을 위하여 더욱 많은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0월 28일 재미 서울대 총 동창회 모교 돕기 백만불기금 회원 일동

정인환, 권길상(이상 남가주지역), 소진문, 임춘수, 이용락, 조영재(이상 시카고지역), 방은호, 이규섭(워싱턴 DC지역), 변우진(미네소타지역), 정정수(필라델피아 지역) 방은호, 윤정옥, 김영덕, 이병준, 김병수, 최수용, 유창남, 오인석, 이진구, 임낙균(이상 Anchor-Donor)

동정

수상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장=최근 미국 International Writers and Artists Association에서 「Best Editor of 2000」상을 수상함.

▲**金在恩**(54년) 師大卒·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8월 5일 안동대에서 안동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함. 金동문은 50년 안동사범학교 본과를 졸업함.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한국협회장=지난 8월 5일 안동대에서 안동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함. 李동문은 53년 안동사범학교 본과를 수료한 바 있음.

▲**李景載**(61년) 商大卒·前중소기업은행장=지난 8월 27일 감사원에서 모법공직자 표창장을 받음.

▲**沈宇永**(64년) 法大卒·한국국학진흥원장=지난 8월 5일 안동대에서 안동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함. 沈동문은 56년 안동사범 병설중학교를 졸업함.

▲**金秉模**(65년) 文理大卒·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지난 8월 27일 감사원에서 모법공직자 표창장을 받음.

▲**崔尙德**(65년) 文理大卒·駐오스트리아 대사=지난 8월 27일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표창장을 받음.

▲**沈大平**(66년) 商大卒·충남도지사=지난 8월 17일, 한국음악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음악대상(예술 행정상) 수상자로 선정됨.

▲**權魯甲**(26기 AMP·前민주당 최고위원)=지난 8월 20일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헌정회관에서 데베 고다 前총리로부터 「평화의 사도상」을 수상함.

▲**高義善**(41기 AMP·농우바이오 회장)=오는 9월 14일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대산농촌 문화상(첨단농업기술진흥부문)을 수상함.

▲**文祐幸**(43기 AMP·SK건설 사장)=지난 8월 8일 부산 지하철 2호선 225공구를 성실하게 시공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張興淳**(44기 AMP·터보테크 사장·벤처기업협회장)=지난 8월 22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15회 한국경영자대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趙光秀**(53년) 醫大卒·성남병원 종합검진센터 과장=최근 아산시 광혜병원 건강검진센터

전문의로 자리를 옮김.

▲**韓都淵**(53년) 師大卒·前청인원장=지난 8월 25일 사이브리아 PC방 한남점을 오픈하고 대표에 취임함.

▲**具聖會**(59년) 師大卒·서울보건대 교수=지난 8월 27일 서울보건대 학제6대 학장에 취임함.

▲**趙準熙**(60년) 法大卒·변호사=지난 8월 17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金東虎**(61년) 法大卒·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지난 8월 29일 개막된 제5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넷팩(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장에 선출됨.

▲**朴欽妍**(61년) 法大卒·前대구대 총장=지난 8월 9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가 운영하는 남도학숙 제4대 원장에 위촉됨.

▲**金仁植**(62년) 工大卒·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이사장=지난 7월 31일 쌍용엔지니어링 회장에 선임됨.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8월 17일 전자거래진흥원에서 열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제2대 위원장에 선출됨.

▲**李健介**(63년) 法大卒·유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8월 23일 법률자문, 회계·세무, 기업평가, 경영컨설팅, 인수합병 등 기업에 필수적인 지식서비스분야별로 11개 회사들이 모여 발족한 주원전문 지식서비스그룹 회장에 추대됨.

▲**李容環**(64년) 工大卒·KTF 사장=지난 8월 1일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유엔의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구인 유엔 ICT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에 선임됨.

▲**盧宇燮**(64년) 法大卒·前감사원 감사위원=지난 8월 1일 법무법인 정현의 금융조세 관련 고문에 취임함.

편집주간석

특지 장학생이 드리는 말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에서 개최된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洪性大특지장학금을 받은 鄭相鏞(농생대 응용생물학부 4년)군에게서 들은 특지장학금에 대한 소회를 소개한다.

“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출신으로 98년 대학에 입학해 1학년 2학기부터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7학기동안 특지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상산학원 洪性大이사장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어 재정적인 걱정없이 4년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에 모교를 떠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여 어려운 후배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른 선배님들도 특지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더 많은 후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李健介**(63년) 法大卒·유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8월 23일 법률자문, 회계·세무, 기업평가, 경영컨설팅, 인수합병 등 기업에 필수적인 지식서비스분야별로 11개 회사들이 모여 발족한 주원전문 지식서비스그룹 회장에 추대됨.

▲**李容環**(64년) 工大卒·KTF 사장=지난 8월 1일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유엔의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구인 유엔 ICT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에 선임됨.

▲**盧宇燮**(64년) 法大卒·前감사원 감사위원=지난 8월 1일 법무법인 정현의 금융조세 관련 고문에 취임함.

▲**崔煥明**(64년) 師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8월 3일 한국경제신문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申載仁**(65년) 工大卒·前한국원자력연구소장=지난 8월 23일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평의회에서 제17대 학회장에 선출됨.

▲**李隆雄**(65년) 法大卒·특허법원장=지난 8월 4일 부산고등법원장에 임명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16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宋永植**(66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지난 8월

▲**李健介**(63년) 法大卒·유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8월 23일 법률자문, 회계·세무, 기업평가, 경영컨설팅, 인수합병 등 기업에 필수적인 지식서비스분야별로 11개 회사들이 모여 발족한 주원전문 지식서비스그룹 회장에 추대됨.

▲**李容環**(64년) 工大卒·KTF 사장=지난 8월 1일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유엔의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구인 유엔 ICT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에 선임됨.

▲**盧宇燮**(64년) 法大卒·前감사원 감사위원=지난 8월 1일 법무법인 정현의 금융조세 관련 고문에 취임함.

▲**崔煥明**(64년) 師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8월 3일 한국경제신문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申載仁**(65년) 工大卒·前한국원자력연구소장=지난 8월 23일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평의회에서 제17대 학회장에 선출됨.

▲**李隆雄**(65년) 法大卒·특허법원장=지난 8월 4일 부산고등법원장에 임명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16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宋永植**(66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지난 8월

祝發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회 장 : 이상문

평 의 원 : 이교락

명예회장 : 김호원

차기회장 : 정동학

부 회 장 : 박옥동, 김현철, 김계운

조동우, 조의환, 오태요

민경환, 정동학, 윤경진

사무총장 : 배규태

사무차장 : 오명순

재무부장 : 구명순

홍보 및 편집부장 : 배규영

섭외부장 : 함완균

청년 및 학생부장 : 이치현

이 사 장 : 김용환

간사 : 전선옥, 이교락, 김백년

곽노환, 이재명, 송필순

이상문, 오계숙, 박봉수

민종식, 황학주, 이상강

최원용, 송요셉, 김호원

감사 : 이재명

장학위원회 위원장 : 김호원

감사 : 이재명

총무 및 재무 : 전선옥, 이상문, 이교락

박옥동, 김현철, 이재명

배규태, 김명자, 황학주

이호신, 조세진, 조의환

김백년, 윤경진

명예회원 : 배 영, 장대홍, 장원호

26일 駐호주 대사에 임명됨.
 ▲李 樑(67년 法大卒·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지난 8월 26일 駐아일랜드 대사에 임명됨.
 ▲金英吉(68년 商大卒·駐상파울루 총영사)=지난 8월 26일 駐베네수엘라 대사에 임명됨.
 ▲孫相賢(69년 行大院入·前외교통상부 의전장)=지난 8월 26일 駐필리핀 대사에 임명됨.
 ▲鄭華鉉(70년 師大卒·외교통상부 감사담당 심의관)=지난 8월 26일 駐상파울루 총영사에 임명됨.
 ▲金賴明(70년 商大卒·현대자동차 부사장)=지난 8월 10일 기아자동차 임시 이사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금남새(70년 普大卒·경희대 교수·유라시아 필하모니 상임지휘자)=지난 8월 3일 충북 청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선임됨.
 ▲丁宇聲(71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지난 8월 26일 駐뉴질랜드 대사에 임명됨.
 ▲韓泰奎(71년 法大卒·외교통상부 본부대사)=지난 8월 26일 駐그리스 대사에 임명됨.
 ▲尹汝憲(71년 商大卒·前동양메이저투자사업본부장)=최근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인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에 선임됨.
 ▲文樺柱(72년 文理大卒·駐뉴질랜드 대사)=지난 8월 26일 駐미국 공사에 임명됨.
 ▲鄭榮九(72년 文理大卒·제주도 국제관계 자문관)=지난 8월 26일 駐파라과이 대사에 임명됨.
 ▲葛政雄(72년 商大卒·대림정보통신 대표)=지난 8월 23일 한국 M&A(인수합병)네트워크의 제3대 회장에 취임함.

▲南善顯(72년 獸醫大卒·KBS 방송문화연구원 주간)=9월부터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돼 「방송제작론」을 강의함.
 ▲趙煥益(73년 文理大卒·前산업자원부 차관보)=최근 한국산업기술재단 초대 사무총장에 취임함.
 ▲盧在成(73년 新大院卒·중앙방송 고문)=오는 2학기부터 세종대 겸임교수로 임명돼 신문방송경영론을 강의한다.
 ▲吳基哲(74년 農大卒·駐수단 공사)=지난 8월 26일 駐수단 대사에 임명됨.
 ▲金義基(74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심의관)=지난 8월 26일 駐루마니아 대사에 임명됨.
 ▲李南洙(74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공보관)=지난 8월 26일 駐스리랑카 대사에 임명됨.
 ▲郭成文(76년 人文大卒·MBC 스포츠 사장)=지난 8월 17일 개최된 주총에서 MBC 플러스, MBC 드라마 넷, MBC 게임 등 3개사 사장에 선임됨.
 ▲金 崙(76년 自然大卒·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수석부사장)=지난 7월 31일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사장에 선임됨.
 ▲金在禹(76년 自然大卒·前교보생명 사장)=최근 한서신용금고 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姜永哲(78년 經營大卒·前대이름 대외협력실장)=지난 8월 10일 전자상거래 인증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주총에서 사장에 선임됨.
 ▲白承奎(80년 經營大卒·순천



향대 교수)=최근 전국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임원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됨.

행사·출간

▲宋仁相(35년 京城高商卒·한국능력협회장)=지난 8월 24일 하얏트호텔에서 산업자원부 張在植(56년 法大卒)장관, 월드컵조직위원회 鄭夢準(75년 商大卒)위원장을 초청, 제337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장)=지난 8월 26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 D-300 전국 자전거 대행진」도착 환영 행사를 가짐.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한중 우호 협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22~23일 서울과 광주에서 故 박인천 창업회장 탄신 100주년 추모행사를 가짐. 또 24일 금호아트홀에서 「한·중 수교 9돌 기념음악회」를 개최함.
 ▲金始中(55년 文理大卒·과학기술포럼 이사장)=지난 8월 25일 조선히otel에서 千性淳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초청,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래」를 주제로 포럼을 가짐.
 ▲張忠植(52년 師大入·단국대



“류증희 동문을 도와주세요”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쓰러져

1997년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류증희 동문이 백혈병으로 쓰러져 현재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 마련에 힘겨워 하고 있다.
 모교 재학중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류동문은 졸업 후 공군학사장교로 군복무 중이었다. 올해 6월 30일자로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 5월 중순경 불시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진찰받은 결과 백혈병으로 판정이 났다.
 1998년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류동문은 다행히 병세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어서 수술을 하면 상당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9월 말 내지 10월 초순 경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수술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류동문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정치학과 91학번 동기회를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나 워낙 수술비 액수가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정치학과 사무실 880-6331, 조흥은행 계좌 : 308-04-738602 예금주 권백신·정치학과 91학번 동기회장)



이사장)=최근 미국 버지니아 주 세너도어대를 방문, 교수·학생 교환 등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의대 길병원 이사장·의대동창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14일 태국 국회 보건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2명을 초청, 심장센터와 서해 권역 응급센터 등 첨단 병원시설을 소개하고 「심장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趙錫俊(57년 大學院卒·모교 명예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공
 동대표)=지난 8월 24일 광주 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지역사회와 지방행정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羅惠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 동창회장)=지난 9월 14일 팔레스호텔에서 「친환경 단지·보조 사료 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鎮德(60년 法大卒·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장)=지난 8월 24일 COEX에서 신규중재인 대상으로 「중재 제도 해설 및 중재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昌九(60년 師大卒·한양여대 학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祝發展在美 서울 大學校 總同窓會

동문여러분! 우리 재미 총동창회는 미주 전역의 동문들이 상호 발전을 격려하는 友情의 場이며 또한 母校를 세계 先進 대학의 반열로 高揚시키기 위한 우리 동문들의 성의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미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동문들이 읽는 알차고 격조 있는 知性人의 友情을 나누는 매체이기를 지향합니다. 재미 동창회보는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올해는 우리 동창회의 제반 사업이 뜻있는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존하던 것을 지양하고, 이제부터 우리 동문들이 다함께 성의를 모아 자급자족하는 목표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에 同門 여러분들을 미주 관악후원회원으로 다시 추대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0월 28일 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자 일동

강영민,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흥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락, 이진구, 이청광, 정태(이상 송신이사) 조만연, 이병준, 정인환, 오길평(이상 남부주지역), 김용학, 이문휘, 이재원, 이재덕(이상 뉴욕지역), 임현재, 임근식, 소진문, 신석균, 최길용, 강영국, 김병운, 최희수, 황치용, 조대현, 정승규, 임춘수, 장기남, 이정일, 최호승, 이용락, 송순영, 한재은, 구경희, 조중행, 박영규, 전현일, 김현욱, 시카고지역동창회(이상 시카고지역), 권철수, 박운수(이상 워싱턴DC지역), 탁순덕(휴스턴지역), 이창재(미네소타지역), 김용건(조지아지역), 조충훈(오레곤지역), 이상봉, 정정수(이상 필라델피아지역), 변화경(뉴잉글랜드지역), 이상문,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이상 하트랜드지역)

회장)=지난 8월 24일 중소기업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전문대학간의 산학협동 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趙南弘(62년 文理大卒·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지난 8월 27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 13차 국제노동 기구(ILO) 아시아지역 총회에 참석함.

▲鮮于仲皓(63년 工大卒·명지대 총장)=지난 8월 27일 중국 베이징대를 방문, 중국 내 한국 고문서 발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

▲李三悅(63년 文理大卒·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지난 8월 25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일 국제이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本會 副會長·관악회 상임이사)=지난 8월 22일 전북대에서 명예 이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聖男(63년 法大卒·반부패특별위원장)=지난 8월 21일 한국인문재단에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짐.

▲朴元勳(64년 工大卒·국제대기환경보건단 체연합회장)=지난 8월 26~31일 웨라톤 워커히호텔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제12회 대기보전세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9월 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12회 한·일 건설기술세미나에 참석, 서울과 도쿄 등 「도시형 수해」의 양국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를 가짐.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29일 대한상회에서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시사점」 등을 주제로 제14회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가짐.

▲司空晄(64년 商大卒·세계경

제연구원 이사장)=지난 8월 28일 성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분당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함.

▲南喆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 보건복지연구소장·한국보건교육협회장)=안식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지난 7월 14~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건강증진·보건교육회의에 참석, 「한국의 보건교육사 자격화 제도추진」이라는 논제를 발표함.

▲梁光敏(65년 工大卒·중앙대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지난 8월 22~24일 용평리조트에서 「21세기 한국 기업의 디지털 경영」을 주제로 경영관련 12개 학회 통합 학술대회를 가짐.

▲車培根(65년 師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회장)=지난 8월 17일 한국인문재단에서 「언론개혁의 쟁점과 이론적 조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吳允晉(65년 行大院卒·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총재)=지난 8월 16~17일 6·25전쟁의 진동리 전투와 통영 상륙작전 전승 기념·추모제를 가짐.

▲李承培(66년 工大卒·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지난 8월 22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다카타 입페(高田一平) 일본 제조물책임(PL) 전문가를 초청, 「PL 대책과 최고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富植(66년 文理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선진 대중교통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원 1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짐.

▲林鍾律(67년 法大卒·중앙노동위원장)=지난 8월 17일 심판회의실에서 노동쟁의 조정, 부당 노동행위 등의 판정 사례를 모은 DB 개통식을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前체육부 장관·조장학회 이사장)=지난 8월 25일 서울 강북 대성학원에서 2001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

卞周浩·成千慶동문 본회 방문 4월에 개국한 RTN방송 소개

지난 8월 22일 동경지부동창회 고문인 卞周浩(53년 文理大卒·RTN방송 회장)동문과 成千慶(64년 法大卒·RTN방송 사장)동문이 본회를 방문,李世震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卞동문은 최근 동경지부동창회와 오사카(大阪)지부동창회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듯이 다함께 힘을 모아 서울대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야겠다고 조언했다.

卞동문은 현재 일본 동경에서 의료법인 東青梅정형외과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부인 朴任福(56년 文理大卒)동문, 아들 卞在正(84년 醫大卒)동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편 成사장은 올해 4월 개국한 부동산 전문 케이블 TV인 RTN(Real estate Television Network)방송을 소개하



卞周浩 회장



成千慶 사장

면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RTN방송(www.rtn.co.kr)은 전국의 부동산 매물·분양 정보, 공매·경매 정보, 리모델링 정보, 재테크 정보, 법률상담 등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촌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농업경제연구

기관장회의와 미국농업경제학회에 참석함. 또 8월 21~22일 연구원에서 FFTC(아태지역 식량·비료 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환경시대의 농업 및 환경정책 통합」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가짐.

▲崔洋夫(68년 農大卒·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모교 호암교회관에서 「농축수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 혁신 및 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朴性洙(68년 師大卒·전주대 총장)=지난 9월 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를 초청, 「미국의 국가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가짐.

▲李鍾農(68년 商大卒·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지난 8월 16일 본점 국제회의실에서 아세안 국가 중소기업담당 공무원 및 기업인을 초청,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관련 세미나를 가짐.

▲韓利憲(68년 商大卒·국가경



영전략연구원장)=지난 8월 22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경기부양인가 구조조정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짐.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 지정 당뇨 및 내분비 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개소

식과 현관식을 가짐.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MF 자금상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또 28일 「은행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짐.

▲李憲錫(70년 文理大卒·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지난 8월 16일 경기 의왕시 철도경영연수원에서 「철도안전 확보

및 사고조사제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가짐. 또 8월 18일 경원대에서 「21세기 한국의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申尙澈(70년 法大卒·고전문화회의 회장)=지난 9월 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외대 이기상 교수를 초청, 「살림살이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제28회 관문논단을 개최함.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8월 1일 태

모교 의학박물관

權彝赫박사 기증품 특별전 개최



權彝赫박사·朴容眩병원장

모교 병원에 위치한 의학박물관(관장:鄭道彦교수, 舊 대한의원)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又岡 權彝赫(47년 醫大卒)박사가 최근 기증한 물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권이혁 박사 기증품 특별전」을 열고 있다.

權박사는 1923년 경기 출생으로 모교 의대를 1회로 졸업했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훌륭한 의학자로 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모교 병원장, 모교 총장, 보건사회부 장관 등 교육계와 의료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의과

대학 졸업증서와 각종 학위증서, 모교 병원장 임명장을 비롯해 평생의 이력을 담고 있는 위촉장과 임명장, 상장과 훈장, 강의노트, 육필원고 등 총 93점으로 공인으로서 살아온 權박사의 족적이 기증 물품을 통해 의학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될 예정이다.

의학박물관에서는 8월 20일부터 제3전시실 내에 마련되어 있는 「이달의 기증 유물 특별전」 코너에 權박사의 기증 물품을 전시해 의학박물관을 견학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물론 의학을 전공하는 젊은 후학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 방곡에서 열린 제1회 교육개혁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교육개혁의 국가의제 설정 방안」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함. 또 교육개발원 창립 29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정책」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가짐.

▲李相哲(71년 工大卒·한국통신 사장)=지난 8월 22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2001 경영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밸류 네트워크 전개 방안」을 주제로 기초연설을 함.

▲曹道鉉(71년 農大卒·아주대 교수·한국키티토키토산학회 회장)=지난 8월 25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키티토키토산 제품의 표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짐.

▲李榮蘭(71년 法大卒·숙명여대 교수·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지난 8월 24일 양재동 스포스타임 회의실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姜玪鎬(71년 商大卒·코스닥증권 사장)=지난 8월 24일 단국대 대학원에서 「IMF 한국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과 적합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姜洙基(72년 農大卒·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16일 로렐리오 그란기움 주한 멕시코대사와 양국 식품과학기술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함.

▲金錫俊(73년 工大卒·이화여대 교수·비전@한국 공동대표)=지난 8월 17일 연세대 상남 경영관에서 「언론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례 정책세미나를 가짐.

▲李鍾徹(73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장)=지난 8월 28일 전북 익산 제일의료재단 익산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짐.

▲崔東煥(74년 工大卒·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AIAA (미항공우주연구원 :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함.

▲李善暻(74년 農大卒·장원대 총장)=지난 8월 17일 장원대 국제회의장에서 중고교 영어교

사들을 대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함.

▲權京鉉(74년 商大卒·교보생명 사장)=지난 8월 23일 인천종합운동장에서 2001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생 육상대회를 가짐.

▲尹永寬(75년 文理大卒·모교외교학과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지난 8월 18일 매경미디어센터 중앙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安文錫(65년 商大卒)위원장을 초청,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가짐.

▲李源德(75년 商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스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짐.

▲林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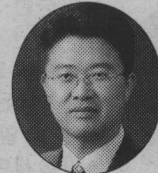
청소년연구소 이사장·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冠岳會理事)=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유스캠프타운에서 제36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함.

▲金煥錫(77년 社會大卒·국민대 교수·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지난 8월 1일 코엑스에서 「인간 유전정보 이용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李忠範(82년 法大卒·정해복지 이사장·한국변론학술연구회 이사장)=지난 8월 15일 중국 연변대에서 한국과

중국 동포사회의 언어, 정서적 일체감 고양과 언어의 이질화 극복을 위해 제7회 한·중 친선 자기주장 발표회를 개최함.

▲李駿星(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8월 2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부인 李殷瑛(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동문과 함께 듀오 리사이틀을 개최하여 플랑, 슈베르트, 드뷔시 등의 작품을 선보임.



▲鄭修安(94년 音大卒·경원대 강사)=지난 9월 1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년, 첼시, 마르티누, 보자, 무전스키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를 가짐.

▲金翼來(27기 AMP·안전회계법인 부회장)=지난 8월 25일 성균관대에서 「조세행정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吳長燮(27기 AMP·前건설교통부 장관)=지난 8월 18일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공주대로부터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李重孝(27기 AMP·안전회계법인 상임고문)=지난 8월 22일 경희대에서 「생명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柳惠熙(29기 AMP·경동제약 회장·대한약품공업협회동조합 이사장)=지난 8월 25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朴益淳(31기 AMP·전쟁기법관장)=지난 8월 28일 방한한 미국 하원 원내총무 톰 딜레이 의원 일행의 미국군 전사자 헌화·추모행사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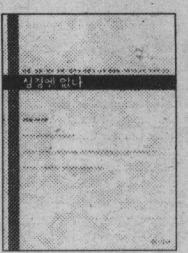
▲徐士鉉(47기 AMP·파워콤 사장)=지난 8월 24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순천향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성경엔 없다



경기대 법학부 高瀧煥(65년 法大卒)교수가 종교다원주의자의 입장에서 예수의 생애를 복원한 책을 내놓았다.

『예수는 12세부터 30세까지 18년 동안 브라만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비밀형제교단,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등을 두루 섭렵하는 진리에의 순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지위에 나아가 금의환향한 것이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12~30세 사이의 행적을 우선 밝힌 뒤 인간 예수의 삶과 관련된 의문점을 차례로 짚어나간다. 마리아가 과연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는 무엇이었나,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연출한 이후 45년간 어떻게 살아갔나. 전통적 기독교인이라면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이 책은 예수를 신앙의 대상

이 아니라 자신만의 절대자와 대화하면서 인격완성에 이른 수행자로 보고 있다. 나아가 기독교의 도그마를 깨뜨리기 위해 인간 예수에게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덧붙여온 베일부터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高동문은 기독교, 불교 신앙을 거쳐 각종 수련법을 연마했으며 현재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선도 대표로서 「한생명 상생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불지사刊·값9,000원>

살맛나는 세상 다녀오기



한겨레신문 스포츠레저부 崔星民(80년 師大卒)부장이 계절에 걸맞은 여행지에 대한 각종 여행정보와 함께 생생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행안내서를 펴냈다.

한겨레신문에서 10여 년간 여행기사를 써 오면서 국내 대표적 여행 저널리스트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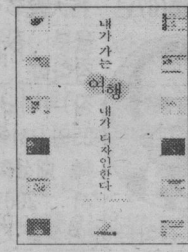
중적인 인기를 모은 崔동문은 평소 「여행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며 자연사랑의 마음을 분출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자연주의 여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살맛나는 세상 다녀오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가볼 만한 곳 49곳을 모았다. 이 책에서 崔동문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덕분에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이 솟아와 닿는 전남 장성 죽령산 숲, 대밭 사잇길을 걸어보는 멋진 피서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담양 대밭골 등을 여름철 여행지로 꼽고 있다.

「섬 내가 섬이 되는 섬」에는 국내 섬 60여 곳을 담았다. 울릉도, 백령도, 마라도, 독도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섬은 물론 가거도, 만재도, 격렬비열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섬까지 두루 다루고 있다. <김영사刊·각권 값 11,900원>

내가 가는 여행 내가 디자인한다

—金大觀 外



한국관광연구원 金大觀(91년 農大卒)책임연구원이 모교 농생대 산림자원학과 金星一(80년 農大卒)교수 등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책을 펴냈다.

인터넷 여행 사이트의 종류와 탐색 가이드북, 여행 스타일별 준비 방법 및 온라인 여행 예약 방법과 호텔 예약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항공 운항과 항공권 구매 방법, 기차 여행을 위한 예약, 짐 꾸러기와 여권, 비자, 관세에 대한 정보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저자들이 실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e-Travel 가이드인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인터넷 초보자를 중심으로 엮은 인터넷 여행 맛보기 부분으로 각종 검색엔진과 여행 사이트를 둘러보고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2부는 온라인 여행예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좋은 인터넷 여행회사 찾기와 여행상품 검색엔진, 여행일정계획, 호텔 예약하는 방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3부에서는 짐꾸러기와 안전한 여행법, 여권, 비자, 관세에 대한 온라인 정보는 경험이 많지 않은 여행자나 처음 떠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국제학생증, 국제운전면허, 병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미래M&B刊·값 7,000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최준혁(94년 工大卒)군·이은영 양=9월 16일 12시 30분.

기창도(98년 工大卒)군·김영전 양=9월 16일 14시.

최동원(97년 法大卒)군·이양인 양=9월 22일 12시 30분.

임환기(01년 工大卒)군·김경미 양=9월 22일 14시.

김영수(95년 社會大卒)군·이금희 양=9월 23일 12시 30분.

전원발(00년 師大卒)군·김민정 양=10월 13일 14시.

최현석(00년 工大卒)군·김정민 양=10월 14일 12시 30분.

김태훈(98년 工大卒)군·이우영 양=10월 14일 14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28일~10월 27일)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 소진문 (치대 58입) \$100
- 관악후원금**
- 임현재(의대 59입) \$1,000
- 하트랜드지역동창회 \$500
- 임근식(문리대 56입) \$500
- 소진문(치대 58입) \$350
- 신석균(문리대 54입) \$300
- 최길용(문리대 61졸) \$300
- 강영국(수의대 67입) \$300
- 조만연(상대 58입) \$300
- 탁순덕(사범대 57입) \$250
- 이재원(법대 60입) \$200
- 김용건(문리대 48입) \$200
- 김병윤(문리대 65입) \$200
- 최희수(문리대 67입) \$200
- 황치용(문리대 65입) \$200
- 이상문(상대 57입) \$200
- 김용학(법대 70입) \$200
- 조대현(공대 57입) \$200
- 정승규(공대 60입) \$200
- 이창재(문리대 56입) \$200
- 이문취(문리대 54입) \$200

회보구독료

- 최웅소(공대 60입) \$50
- 임현재(의대 59입) \$50
- 강영국(수의대 67입) \$50
- 소진문(치대 58입) \$50
- 유태임(교육대학원 67입) \$50
- 김태훈(공대 57입) \$50
- 김용성(상대 54입) \$50
- 고병철(법대 55입) \$50
- 손홍용(공대 58입) \$50
- 전방남(상대 73입) \$50
- 이상문(상대 57입) \$50
- 이수복(약대 70입) \$50
- 홍주안(공대 66입) \$50
- 성성모(사범대 67입) \$50
- 김흥기(사범대 58입) \$50
- 정승규(공대 60입) \$50
- 장윤일(공대 60입) \$50
- 윤재명(의대 65입) \$50
- 조형준(문리대 62입) \$50
- 최영혜(간호대 64입) \$50
- 전영자(미대 58입) \$50
- 구명순(간호대 66입) \$50
- 강창만(의대 58입) \$50
- 맹옥열(간호대 68입) \$50
- 문덕수(공대 73입) \$50
- 이근설(상대 56입) \$50
- 정광진(농대 76입) \$50
- 남상용(공대 52입) \$50
- 구경희(의대 59입) \$50
- 고영철(의대 45입) \$50
- 계훈택(의대 55입) \$50
- 송재현(의대 48입) \$50
- 배건재(공대 53입) \$50
- 이덕수(문리대 62졸) \$50
- 이철주(치대 77입) \$50
- 김상만(음대 46입) \$50
- 이영웅(의대 62졸) \$50
- 문일지(공대 61입) \$50
- 김택수(의대 63졸) \$50
- 오광동(공대 52입) \$50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29 이수복(약대70입) 홍주안(공대66입) 김흥기(사범대58입) 문덕수(공대73입) 이근설(상대56입) 정광진(농대76입) 김향자(약대61입) 최예섭(치대45입) 김재신(음대60입) 박취서(약대60입) 강영빈(문리대58입) 임택선(공대52입) 김광근(치대59입) 오길평(치대61입) 김진호(약대64입) 정유석(의대 58입) 강항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59입) 신정자(사범대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석(문리대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일부CT)	7 최영혜(간호대64입) 박장생(의대54입) 이삼민(문리대58입) 홍정표(음대67입) 주성문(의대58입) 이찬서(자연대82입) 곽선섭(공대61입)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39 최웅소(공대60입) 임현재(의대59입) 강영국(수의대67입) 소진문(치대58입) 유태임(교육대67입) 김용성(상대54입) 고병철(법대55입) 정승규(공대60입) 장윤일(공대60입) 강창만(의대58입) 구경희(의대59입) 계훈택(의대 55입) 송재현(의대48입) 배건재(공대 53입) 이덕수(문리대62졸) 이철주(치대77입) 전영자(미대 58입) 남상용(공대52입) 고영철(의대45입) 이영웅(의대62졸) 김택수(의대63졸) 조형원(약대 54졸) 박창훈(공대 66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이법세(의대57입) 임재일(농대 64입) 이정일(농대57입) 장기남(문리대 62입) 김정일(의대57입) 서상현(\$100, 의대71졸) 조중행(의대 63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대 72입) 차광순(사대 70졸) 최동규(법대 79입) 이용락(공대 48입) 이승자(사범대 60입) 임이섭(\$100, 미술대 54입) 손기용(의대 68입)
06	워싱턴 DC (MD, VA)	4 오광동(공대52입) 맹옥열(간호대68입)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섭(상대 68입)
07	워싱턴주 (WA)	3 윤재명(의대65입) 김봉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08	휴스턴 (HOUSTON, TX)	1 김태훈(공대57입)
09	달라스 (DOLLAS, TX)	1 김인호(공대 47입)
10	미네소타 (MN)	5 문일지(공대61입) 조형준(문리대62입)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한수(농대62입)
11	조지아 (GA)	
12	아리조나 (AZ)	
13	유타 (UT)	1 손홍용(공대 58입)
14	하와이 (HI)	
15	오레곤* (OR)	4 김상만(음대46입) 성성모(사범대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16	기타 (중부)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 이종진(공대 55입)
19	필라델피아 (PA)	1 전방남(상대73입)
20	뉴잉글랜드 (MA)	2 노인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21	하트랜드	2 구명순(간호대66입) 이상문(상대57입)
22	펜실바니아	
계		100 \$5,15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조만연(300)이병준(3,000) 정인환(200) 오길평(200)	4	3,70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김용학(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4	8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임현재(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현(200) 정승규(200)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이용락(5,0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순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중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옥(200)	24	18,150
06	워싱턴 DC (MD, VA)	권철수(500) 박윤수(1,000)	2	1,500
07	워싱턴주			
08	휴스턴	탁순덕(250)	1	250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이창재(200)	1	200
11	조지아	김용건(200)	1	200
12	아리조나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조중훈(200)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19	필라델피아	이상봉(200) 정정수(200)	2	400
20	뉴잉글랜드	변화경(300)	1	300
21	하트랜드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2	700
22	중부펜실바니아			
일반 이사 합계			42	\$23,400
종신 이사 합계			1	\$ 3,000
총 계			43명	\$26,4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1년 9월28일~10월27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흥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락, 이진구, 이청광
정태

임현재 (의대 59입) \$1,000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500
임근식 (문리대 56입) \$500
소진문 (치대 58입) \$350

300달러이하

신석균 (문리대 54입) \$300
최길용 (문리대 61입) \$ 300
강영국 (수의대 67입) \$ 300
조만연 (상대 58입) \$ 300
탁순덕 (사범대 57입) \$ 250
이재원 (법대 60입) \$ 200
김용건 (문리대 48입) \$ 200
김병윤(문리대 65입) \$ 200
최희수 (문리대 67입) \$ 200
황치용 (문리대 65입) \$200
이상문 (상대 57입) \$ 200
김용학 (법대 70입) \$ 200
조대현 (공대 57입) \$ 200
정승규 (공대 60입) \$ 200
이창재 (문리대 56입) \$ 200
이문휘 (문리대 54입) \$ 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9월28일 ~ 10월27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약 42입)

윤정옥 (뉴욕. 약 50입)

김영덕 (뉴욕. 공 53입)

이병준 (남가주. 상 55입)

김병수 (뉴욕. 상 55입)

최수용 (뉴욕. 상 55입)

유창남 (뉴욕. 의 58입)

오인석 (뉴욕. 법 58입)

이전구 (뉴욕. 농 60입)

임낙균 (남가주. 약 64입)

3,000달러이상

1,000달러이상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소진문 (치대 58입) \$ 100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정인환(200)권길상(100)	2	30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4	1,600
06	워싱턴 DC(MD, VA)	방은호(5,000) 이규섭(150)	2	5,15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09	달라스(DALLAS, TX)			
10	미네소타(MN)	변우진(100)	1	100
11	조지아(GA)			
12	아리조나(AZ)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18	기타(동부&캐나다)			
19	필라델피아(PHILADELPHIA, PA)	정정수(500)	1	500
20	뉴잉글랜드(MA)			
21	하트랜드			
22	펜실바니아			
	총 계		10	7,650

약정하신 동문들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기타			

총 합 계	10명	7,650
--------------	------------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보는 우리 동문들의 글과 소식을 모아, 동문들의 손으로 만들어 동문들이 읽는 우리의 동창회보입니다. 이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들의 회보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제안을 언제나 이 편집자는 기다립니다.

원고 및 자료 투고요령과 편집원칙

- <알차고 격조있는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동문여러분 글로써 지성인의 우정을 나눕시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공과 좌절의 순간과 특별한 경험들을 동문들과 나눕시다.
 ◇당신의 분야에서 초보적인 사항들은 타분야에 종사하는 일반동문들에게는 유용한 지식이 됩니다.
 ◇동문들과 함께 쓰고, 생각하며 토론합시다.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셔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Ⅵ)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1)
- 2)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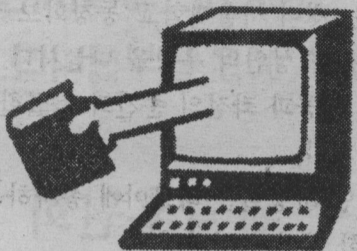
전화:

e-mail:

Fax :

기타 의견란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I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한영우 B:718-463-9100 H:914-592-5448
남가주	이창광 B:626-795-7988 H:818-888-9772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샌프란시스코	김은종 B:510-567-8800 H:925-736-5516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조대현 B:630-972-4595 H:630-920-2201	장영수 B:630-252-4076 H:630-357-6275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B:508-366-2743 H:508-389-1706<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필주 B:651-730-6203 H:651-436-5642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문성길 B:703-914-2000 H:703-893-0855	송상희 B:703-974-7194 H:703-503-0864
워싱턴주	황수택 B:253-627-8680 H:253-927-8668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휴스턴	이옥배 B:281-491-8972 H:281-265-282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최근자 B:214-665-8345 H:972-403-1269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박창성 B:503-692-6747 H:503-579-8492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하트랜드	김호원 B:913-451-4999 H:913-897-5365	이 욱 B:814-862-0494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캐나다/온타리오	이아병 B:416-385-0107 H:416-250-6908	최승선 B:604-584-5067
캐나다/밴쿠버	엄승용 B:604-542-0595	
캐나다/에드먼턴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제 안내

강 련

Pusan Pipe America
이병준 (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

골프용품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

공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

이법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

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

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

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

이규선 (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

공학상담

IBECONS INT L
김재철 (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

교 육

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

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

금 고

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

금융/증권

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 (상대 55입)
(201)695-5757
New York, NY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 (상대 70입)
(212)736-6575
New York, NY

무 역

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

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

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

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

편의점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

병 립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

병 립 수의과(동물병원)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

병 립 신경외과

Rim and Sul, MDPC
임춘수 (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MI

병 립 심장정맥과

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

병 립 위장내과

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

병 립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

보 식

Gold Plus
서재숙 (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

보 험

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성주경 (상 68입)
(213)387-5252
Los Angeles, CA

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

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

부 동 산

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

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

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

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

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

로알 부동산
엄무광 (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

설 계

NKP Architectures
남신우 (공 61입)
(908)636-4800
Woodbridge, NJ

JND Engineering, Co
박진득 (농 67입)
(310)404-1848
Cerritos, CA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

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

MASH
심상은 (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

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 (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

KS E biz
장세완 (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

인 터 넷 서점

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692-9888
L.A. CA

지 무 차 부 물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

진 자

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

주 류 상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원 (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

학 원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

인 의 심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

화 장 품

Revicci (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입 · 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

학 원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입)
(800)252-way
New York, NY

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욱 재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 수표에 Payable to 'SNUAA in the USA' 그리고 '2001년 구독료' 라고 명기바랍니다.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를 돕기위한 1백만달러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

